

# 경기문화저널

한 국 문 화 의 중 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 경기도문화지평

한 국 문 화 의 중 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02 권두언 |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 컬럼 및 정책 제언

05 -지역문화원의 역할 | 하세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10 -어르신 문화학교의 새 길찾기 |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장)

## 경기도 문화원 기획사업 심층취재

24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26 -의정부문화원 '의정부 문화원과 함께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 경기도 문화인물을 만나다

32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 | 한춘섭 (성남문화원 원장)

37 -문화원의 달인 | 주인숙, 연구자, 윤미순 (용인, 시흥, 포천문화원 과장)

43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  
그 속에서 합일을 발견합니다. | 장태환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위간사)

49 -우리가 지켜야지요! |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

## 경기도 역사문화

54 -두레와 걸립의 조화로운 연희, 웃다리 평택농악 |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61 -연천문화기행 | 이준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65 -안양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 오미경 (안양문화원 간사)

67 경기도지회 2011년 이야기



권두언

## 문화는 이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문화의 흐름은 '현재' 라는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미래는 무언가 모르는 시간적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재가 밀고 가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개념이 현재의 연속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사용되는 비율은 약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현재' 의 나머지 70%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통섭적 사고를 바탕으로 둔 상상력과 창조적인 사고로 채워야 합니다. 즉, 다가올 시대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함께 상상력에 바탕을 둔 창의적, 창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최근 '통섭 교육', '융·복합적 사고' 가 문화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 개념의 확장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늘날 세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미래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전통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조사, 연구, 발굴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방문화원의 장점이자 강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역사적, 전통적 기반위에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장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 낸 빛나는 성과이며 그 성과를 전국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히 가공할 만한 흐름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확신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 용 원

그러나 시대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지적 성과와 경험 위에 창조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견고한 현재라는 거대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미래로 밀고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저는 거기서 지방문화원의 패러다임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문화사업의 최종적 목표는 '관객 개발'이라는 개념이 한 동안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즉, 문화예술교육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될 때 왜곡된 현상으로 비춰지는데, 그 성과를 평가할 때의 '정량적 평가지표'가 그것입니다.

이제 문화사업의 기조는 '리즘적 개념'으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리즘적 공동체 개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할 때,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맥락에서 읽히게 됩니다. 그 문화사업이 지역문화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더 명확하게 읽히게 되며, 보다 정교한 문화예술기획이 가능해집니다. 저널이라는 구조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들의 정책적 대안들을 끌어내고, 펼쳐지고 있는 문화사업의 구조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문화가족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취재하고 현재 경기도 시, 군문화원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 해 창간되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경기문화저널이 발간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지평

---

한국문화의 중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 컬럼 및 정책제안

- 지역문화원의 역할
- 어르신 문화학교의 새길 찾기



# 지역문화원의 역할

하세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를 축적하고, 걸러내고 유지하는 역할은  
국가뿐 아니라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  
그 중심에 문·화·원

현대사회를 일컬어 '문화의 시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워낙 폭넓은 개념이라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생활양식, 그리고 지적 양식을 통칭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문화의 개념을 거칠게 표현하면, 사회에서 습득된 행동양식과 그 결과의 총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는 수많은 구성요소 중에서 각 구성원이 나누어 간직하고, 또 서로에게 전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파된 문화를 축적하고, 걸러내고 유지하는 역할은 국가뿐 아니라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체는 수없이 많지만, 각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문화원의 역할을 특정한 분야에 한정시키거나 관변단체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지역문화원이 제대로 기능해왔는가 하는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역문화원은 그 설립목적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각 문화원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진흥' 이라는 지역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어휘의 해석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그 실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계발과 연구조사 활동이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화진흥'에 지역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접하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 추진한 문화발전계획의 목적은 "고유한 한국의 철학과 주체성에 기반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 이 공포되면서 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도입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핵심 골자로 하여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 (1974 ~ 1978)이 입안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문화 중흥을 달성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목표는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정립하는 것, 둘째 예술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 셋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문화'의 개념을 '문예'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문화발전의 거시적 방향을 왜곡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진흥'의 의미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문화원에 대해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전통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곳, 또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계발

전승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활동 역시 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인식들로 인해 문화원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문화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문예' 라는 협의의 틀에 가두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문화의 한 부분일 뿐, 예술 자체가 문화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문화원들은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폐강되거나 종료되면 회원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전체 회원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충성도도 약하여 회원 유지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역문화원이 많은 시민들이 교류하며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문화원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회원이 없는 문화원, 시민이 동참하지 않는 문화원은 몇몇 문화계 인사들만의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문화원은 편향된 목적만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원 활동에 동참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민사회단체 간 사무국장 연대회의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인 시흥의제 21과 협력하여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성격상 처음에는 지지부진하였으나 만남을 지속할수록 신뢰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호간 사업을 공유하면서 행사일정을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조직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지역 내 서로 다른 조직간 소통의 문화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단체의 성격상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교류하며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사무국장 연대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문화원 회원의 확대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로는 회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약간의(3,000원/월) 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회비를 받는 만큼 사단법인인 문화원도 회원들을 확보하여 회비를 받아야만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비 납부가 아니라,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해 문화원이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회비를 내고 있다는 것, 그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문화원이 회원들을 충분히 배려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돌아보건대 상호호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무언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뭔가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시흥은 부천, 인천, 안양, 안산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문화적 인프라가 풍족한 도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쇼핑은 인접한 도시들의 대형 백화점에서, 문화적 욕구는 인접도시의 문예회관, 영화관 등을 이용하는 등 인접도시의 베드타운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시흥에도 유명브랜드의 영화관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영화관이 그리 붐비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몇몇 지인들과 영화를 관람하였을 때는 우리가 관객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불문곡직 영화관을 찾아가 신분을 밝히고 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시흥시민이 인접 도시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또 영화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영화관도 지역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계층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원 회원에 대해 영화 관람료를 할인해주면 영화관의 공석률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원 회원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방안이었습니다.

몇 개월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영화관 관람료에 대한 '문화원 회원 할인제도(2,000원/회당, 동반자 1인 포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제도로 인해 상당수의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연차적으로 지역 내 각 체육센터 레슨비, 병원의 진료비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원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혜택들이 더 늘어나고 문화원의 협상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원 자체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이어야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더욱 문화원다운 문화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의 작은 경험이 각 문화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  
르  
신  
문  
화  
학  
교  
의  
새  
길  
찾  
기

초암교육예술연구소장 손채수

### 배움과 일

배움은 그 과정 안에 신비와 놀라움 그리고 기쁨이 함께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알게 됩니다. 배움을 강요하고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놀라움과 신비를 느낄 소중한 기회를 아이들로부터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성인학습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실 안에서 배움을 접합니다.

교실 안에서의 배움은 대부분 책을 통한, 활자를 통한 간접경험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간접경험의 사례를 책을 통해 접하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빨리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입니다.

작은 바늘과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마름질하고 ... 어디는 자르고.. 어디는 꿰매고.. 책의 면을 이리저리 읽어서 머릿속에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직접 천을 사서 마름질과 자르기, 꿰매기를 하면서 만든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제경험과 간접경험, 내가 직접 시행착오와 함께 접하거나 경험한 '실제의 내 것' 과 '다른 분들의 먼저 노력해 구축해 놓은 배워놓아야 할 것'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잡힌 '배움과 삶'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는 이들은 자기 손으로 한 일이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뿌듯한 성취감과 충만감도 가슴에 함께 담습니다.

인간으로서 꼭 배워야 하는 유용한 일들이 지금의 교육제도 안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습니다.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세 젊은이가 돌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얼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첫째가 통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바보라도 내가 뭘하고 있는지 알텐데 뭘...” 둘째는 좀 더 공손하게 대답했죠. “벽을 만들거예요.” 셋째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노래부르듯이 말했죠.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교사로서의 됴됨이를 보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실은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가르칠 사람들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자기가 가르칠 과목을 진실로 재미있어 하는지, 그래서 가르칠 분들에게 진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임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목에서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가능해서 예술을 통해 역사를 가르친다든지, 반대로 인문학을 통해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며 어떤 분위기에서 공부하느냐하는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분들을 위해 풍족한 분위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교재가 풍족한 것도 좋지만 경험과 감성, 이유를 묻지 않는 용인, 넉넉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이며 ‘충분한 보살핌’ 이고 ‘배려’입니다.

## ...시대는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은 가장 값진 보물이며 가장 값진 소유물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 쌓아온 귀중한 삶의 지식과 지혜는 요즘의 빨리빨리 그리고 기능적으로 전해지는 지식으로는 전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짧지 않은 삶의 과정에서 쌓아온 지식과 지혜가 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일을 하며 삽니다. 아이들은 일하고 있는 어른을 흉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 할 때의 그대는 플루트이니  
그대 가슴을 통과하여  
시간의 속삭임은 음악으로 변한다.  
노동을 통해 삶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가장 은밀한 비밀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일은 모두 텅 빈 것이니,  
일이란 눈에 드러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 칼릴 지브란

일이란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고된 일이 힘들 뿐이지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역할 모델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일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을 자발적으로 맡아 즐기면서 한다면 일은 또한 자신을 발전시키는 흥미로운 학습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원숙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린 세대에게 성숙한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여여하고 창조적이며 편안한 면모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본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령층에서 잠자고 있는 잠재된 개개인의 능력들이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정과 꾸준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간정신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해야 합니다.

## ..어르신과 문화예술교육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2011년 노인청춘대학에 저희 연구소 프로그램 ‘인형과 함께 들려주는 그림책, 돌북 돌북(Doll book, Doll book)’ 이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수업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같은

영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강사들과 의견을 나눌 자리가 종종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낫다는 사실에 매우 당혹했습니다. ‘노인들은 하나 하나를 입에 넣어드려야 한다.’, ‘노인들은 아기같다.’, ‘노인들은 자기만 알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등등의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앓다며 얘기를 하자 “아직 쓴맛을 못봐서 그렇다”는 모진 대답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나름의 상황에서 나온 경험치이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의 어르신들, 그들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 역사의 가장 굴곡진 부분을 그분들의 삶으로 함께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광복을 맞고 골육상쟁의 6.25를 거쳐 4.19와 5.16을 지켜보고, 잘 살아보자는 깃발아래 한국 산업화의 도약을 만들어 지금의 한국을 만든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귀한 분, 장한 분들이십니다. 그러한 그분들이 이제는 편안히 존중받으며 쉬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너무나 바쁘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르신으로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기보다는 너무나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컴퓨터사용법 익히기, 핸드폰사용법 익히기에 여념이 없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 다른 이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수영과 댄스, 건강관리에 부단히 노력하시느라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사회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모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마을어르신을 찾아가 상의하고 그의 지혜를 청했습니다. 마을이나 지역에서 오래된 삶의 지혜를 전해받은 젊은이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신·구세대가 함께 서로의 존재에 대해 든든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화시대에는 어르신들 개개인의 경험을 한꺼번에 그것도 어느 내용이 더 정확하고 올바른지 컴퓨터 지식검색에서 한 번에 전해주니 어르신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배워버리고 배움이 기능이 되어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원숙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린 세대에게 성숙한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여여하고 창조적이며 편안한 면모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본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보통 노인이라 함은 연령은 65세 이상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노동현장에서 은퇴하여 역할 과 소득을 상실하고 심신이 쇠약한 생애에 있는 인구층이라 합니다. 새들러(Sadler 2000) 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생애주기를 네 단계로 나누어 퍼스트 에이지(first age), 세컨 에이지(second age), 서드 에이지(third age), 포스 에이지(forth age)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트 에이지(first age)는 배움의 단계로 학습을 통해 1차성장이 이루어지는 10대, 20대 시기를 말합니다. 세컨 에이지(second age)는 일과 가정을 위한 단계로 생산과 출산을 통해 자신만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시기이며 30대시기를 말합니다. 서드 에이지(third age)는 '생활'을 위한 단계로 청년기인 제1연령기대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1차성장과는 다른 2차성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해가는 시기입니다.

40대에서 70대 중후반의 시기를 서드 에이지 단계로 구분하는데 서드 에이지(third age)는 생애주기상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단계이자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계이지만 이 전세대에서는 없던 연령기로서 삶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열정,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에 눈뜨는 재탄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포스 에이지(forth age)는 서드 에이지(third age)이후 연령대의 '노화' 단계를 지칭합니다. 즉 노인은 서드 에이지(third age)와 포스 에이지(forth age) 두 시기에 걸친 인구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 노인이란

1. 배울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2.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3. 늙었다고 느낀다.
4. 듣기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5. “이 나이에 그깟 일을 뭐하려고 해” 라고 말하곤 한다.
6.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7. 젊은이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를 언급한 히포크라테스는 처음으로 7년주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후에 교육사상가이자 인지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사람의 생애를 7년주기로 밝혔습니다. 그 주기 안에서 탄생부터 하나하나 기본적인 하강과 상승과정이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7년주기가 계속되어 56~63세 시기에는 원숙함의 시기가 온다합니다.

63세에 이르면 인간은 그의 성숙을 완성할 수 있으며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자유정신으로서 인간성에 봉사하는 시대정신의 동반자로서, 물론 이것은 진심으로 희망사항이며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스물다섯해 전, 대한투자신탁 도서자료실장으로 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엔 초기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사회부활동을 하였습니다. 1990년 안성 노곡리에 살 때 책을 기증받아 마을회관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책이 그림책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보고 웃고 하였던 것이 그후엔 그림책의 주인공들을 천인형으로 만들어 교육인형으로 가르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저희 초암교육예술연구소에 60대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Book Book)’ 프로젝트 개발을 의뢰하여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엔 수원 희망샘 도서관에서 북북(Book Book) 프로젝트를 12차시로 실행하였으며, 금년 2011년엔 서울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인형과 함께 들려주는 그림책, 돌북 돌북(Doll book, Doll book)’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30차시로 개발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이마만큼 아이의 맑은 눈도 소중합니다.  
이 맑은 눈에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드라운 이마와 아이다운 노력과 믿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해돋이와 해넘이가 똑같이 아름답고,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똑같이  
소중하듯이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고,  
새로운 물결이 밀려옵니다.



노인은 아이들을 통해 웃고 활력을 찾습니다. 어린이는 엄마, 아빠의 권위나 보호에서 벗어나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포근한 사랑과 넉넉함을 느낍니다.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와 저물어가는 세대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아늑함과 편안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자신만의 인생경험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강한 바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자식세대에게보다는 손자, 손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해주기가 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와 시간 보내는 것을 즐기고 또 함께하는 동안 노인은 아이가 되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깊이있는 체험과 지혜를 얻습니다. 두 세대가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건 서로를 강하게 연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를 강하게 연결시키는 이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힘이 세대간에 이어지는 든든한 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이 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일로 '이야기 들려주기'를 떠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알고 있는 옛이야기를 아이가 조르니까 어쩔 수없이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듣는 아이에게는 그 이야기의 세계가 신비하고 이상하고 재미있는 즐거운 상상의 세계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역시 귀여운 손자, 손녀, 이웃 아이들과 이야기로 소통하는 이 교류의 시간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옛이야기를 들던 그 시절의 아이처럼 그러나 이젠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즐거운 입장에서, 맛깔나게 이야기를 해 주셨지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 요즘 현실 속에서 옛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드물고 아이들은 다양한 정보매체와 접하면서 이야기만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암교육예술연구소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책과 인형을 책읽어 주기와 결합시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준다'는 '같이 책을 읽다'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책이 함께하는 사람들간의 소통에 중요한 매개체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책읽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는 책 역시 소통과 나눔을 펼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읽기'를 통해 축적된 개인의 문화적 자산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소통하고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훌륭한 예술적 자산일 수 있는 그림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림책은 글을 담당하는 작가와 그림을 담당하는 화가와 책의 디자인과 제본을 담당하는 편집자가 함께 한 예술창작물입니다. 이러한 그림책은 미술교육이나 다양한 예술체험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든 어

린이들에게 좋은 예술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읽어가며 소리 내어 읽는 방식, ‘인형’ 등을 만들어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 그림책의 내용을 희곡 대사화하여 소리와 눈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는 방식이 있으며 북아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 다양한 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책읽기를 단순한 지식축적의 의미보다 즐거운 예술놀이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는 어린이의 제한된 경험을 그림책을 통한 상상체험으로 보다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이 그림책 읽어주기의 목적입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듣는 어린이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면서 공감의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그림책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편안하게 해 주는 이상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책은 가까이 두고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싶어집니다. 힘들 때는 그림책을 펼쳐 들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좋은 음악을 생각날 때마다 몇 번씩 듣고 또 듣고 하듯이...

그림책에서 그림은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글의 의미를 더 명료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글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의 그림책에서는 글이 점점 더 적게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그림책의 그림이 먼저 보이고 어른은 그림책의 활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림책은 원래 홀로 읽는 책이 아니고 어른이 읽어주는 책입니다. 어른과 어린이의 책읽기의 특성을 서로 잘 이해하고 살려, 함께 보고 들려주는 그림책 읽어주기는 서로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림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간단한 판자인형으로 만들어 읽어주며 보여주는 작은 공연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 책으로 하는 예술놀이

홀로 맛보는 책읽기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책읽기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책을 읽어주며 다른 이와 함께하는 책을 통한 새로운 예술놀이의 발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 대다수는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부추김이 독서운동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책을 가지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예술적 접근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어른들은 그림책은 글자를 모르는 아동들만 보는 책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서점에 가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갈래의 그림책이 많이 눈에 띕니다.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그림책에는 활자를 뛰어넘는 흥미로운 상상력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예술적 그림책들과의 만남과 우리나라 그림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풍부한 문화적 예술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술그림책과 인형을 통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림책과의 즐거운 만남과 이야기 들려주기 과정을 통해 세대간 소통과 나눔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야기 들려주기’는 전통적으로 문화적 유산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하는 수단이었으며,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 들려주기’는 비디오 등 다양한 불거리에 익숙한 요즘 비주얼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예술성 높은 그림책을 중심으로 인형극적 요소를 결합시켜, 예술놀이로 새롭게 책읽어주기 방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어린이들은 그림책의 전체적인 이야기전개에 끊임없이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책 속 인형이 등장하는 이야기 들려주기’ 방식은 아이들에게 친근한 이야기와 예술적인 그림으로 몰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체줄거리를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색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어르신은 다양한 그림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책 속의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죠. 그림책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림책은 아주 쉽게 그림으로 단박에 이해하게 해 줍니다. 또 인생의

의미를 전하는 경우에도 그림책은 과장하지 않고 진솔한 그림과 이야기로 깊이있게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공통으로 느끼는 공감을 그림책을 통해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읽기의 재미에 빠지시면 작가와 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시금 그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어르신은 아이들과는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즐기시면 이것을 어떻게 맛나게 활용하실지도 어르신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자손녀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를 해 보시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볼 좋은 예술그림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들려줄 작은 공간,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자원 봉사자로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신다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어린이교육에 관심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귀한 경험을 나누시게 되리라 봅니다. 그림책 읽어주기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홀로 사는 외로운 어르신과 부모가 바빠서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 따뜻한 사람의 기운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림책 읽어주기로 사회와 소통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찾아가 펼친 '인형과 함께 들려주는 그림책, 돌북 돌북(Doll book, Doll book)' 활동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마주보고 들려주는 그림책, 움직이는 인형과 함께한 인형극 즐기기, 모든 것이 끝나고 달려와 안기는 어린이들을 품으며 어르신들은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아이들과의 만남에 긴장하시고 활동에 대한 불안 및 우려를 나타내셨지만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의 반응에 고무되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또 첫 번 아이들과의 만남 이후에 더 잘하시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와 움직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은 배움에 대한 욕구로 바뀌어 그림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음은 인형과 함께 들려주는 그림책 돌북 돌북(Doll book, Doll book)' 이 사회공헌활동을 나간 어린이집에서 보낸 후기입니다.

## 돌북 돌북 관람 후기

### 1.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

그동안 복지관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자료를 만드시고 동화구연을 연습하셨을 시간들을 생각하니 정말 멋진 어르신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화선정을 전래 동화로 하셔서 더욱 맛깔나게 표현하신듯 합니다. 마치 친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를 듣듯이 친근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동화에 집중했던 아이들은 동화 할머니가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으로서는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저희 아이들에게 동화뿐 아니라 어르신들만의 특색있는 활동을 더 많이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어린 마음을 가져봅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에서 만족해하시는 행복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더 많은 연계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 방학2동 어린이집

2011년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우리 어린이집은 도봉노인복지관을 통해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돌북, 돌북 활동 참여는 처음, 신청에서 제외 되었을 거란 이야기에 아이들과 교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연락이 왔을 때에는 참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일전에 도봉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전달해주셨던 동화배달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과연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실까?' 기대와 함께 아이들은 매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세팅을 하고 봉사활동 선생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리고 단아하고 고운 옷차림에 얼굴엔 함박 미소와 함께 등장하시는 봉사활동 선생님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 맞추시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도 건네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선생님하며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떠들기도 하며 활동하였지만 모두 환하게 웃어주시며 다정한 이야기로 집중을 도와주시는데 교사인 내가 보면서도 그 단아함과 끈으신 모습에 반하였습니다.

우리는 구름빵 이야기와 망태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망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입체적인 판자인형과 배경, 동화 속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듯한 실감나는 동화 구연 목소리에 아이들은 쉽게 이해하며 매료되고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듯하였습니다.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요즘도 종종 동화를 들려줄 때면 아이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다시 또 듣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디어를 얻어 응용하여 활동을 계획하거나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신청하여 어린이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2012년에도 이런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이 계획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3. 구립 창4동 어린이집

유아들이 평소 가정에서도 쉽게 접하고 또 좋아하는 동화인 ‘구름 빵’ 배경 그림과 등장인물이 나타나자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등장인물과 배경 그림 자료 등을 준비해오시고, 목소리도 캐릭터마다 다르게 내어 주어 유아들이 동화에 집중하며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화가 준비되는 시간 동안 그냥 기다렸다면 유아들이 분명 지루해할 수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끈 마술을 보면서 유아들이 구름 빵 동화를 들으면서 가졌던 관심과 호기심이 지속될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셨던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지체되었던 마술의 진행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술이 끝난 뒤에 보여주셨던 ‘똥자루’ 동화는 유아들이 평소 흥미로워 하는 소재를 주제로 한 동화였다는 점에서 유아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와 어울리는 큰 목소리와 판자인형을 가지고 유아들에게 직접 다가와 질문을 하시는 등의 활동과정에서 유아들이 더욱 큰 흥미와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동화를 듣는 모

습을 볼 수 있었고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으며 동화를 듣고 난 후에도 동화 내용을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동화를 듣는 시간이 즐겁고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보기에 즐겁고 유쾌한 동화듣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모습을 보면서 유아들과의 활동 때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즐거운 시간임과 동시에 또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어르신에 의한 어린이교육

지금의 어르신 문화학교는 대부분 '노인을 위한 교육'에 치우쳐있는 듯합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문화적, 사회적 소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문화학교에 인생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어르신에 의한 어린이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나아가 예전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어르신들의 위치를 다시 되살리는, 그래서 오랜 삶의 결과인 어르신 자신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차차세대에게 증여하는 '어르신에 의한 어린이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에 의한 어린이교육'의 책임자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일을 즐기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어르신에 의한 어린이교육'이 잘 진행되기 위해선 몇 가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대화법과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셋째, 어르신들 각자가 자신의 손자손녀를 대상으로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 있는 장기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인형과 함께 들려주는 그림책 돌북 돌북(Doll book, Doll book)'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문화학교가 어르신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어린이교육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펼쳐져,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자 동네와 마을의 정신적인 구심으로 어르신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 문화원

한국문화의 중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 경기도 문화원 기획사업 심층취재

- 사유의 힘, 전통을 창조하는 시작  
: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 우리 아이들, 마을이 함께 키운다!  
: 의정부문화원 '의정부 문화원과 함께 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 사유의 힘, 전통을 창조하는 시작 -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틀리다-다르다’  
‘불평등’  
‘중용’

흰색 보드에 어지럽게 판서되어 있는 글자 중에 한쪽에 차례로 내려오면서 적혀있는 글이 눈에 띄었다. 11월 중순, 양주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문화대학 취재를 위해 강의가 있는 날 방문하였다. 보드 한 칸에는 법고창신-온고지신과 연계하여 idea-ideologue에 관련된 열감을 한 흔적이 보였다. 이를 지켜보는 어르신들은 강사선생님 보다 훨씬 연세가 있어 보였다. 3학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하반기 테마 강좌가 진행 중(강사 홍정덕) 이었다.

양주문화원(원장 박성복)이 역사문화대학을 시작한 것은 2001년 3월부터이다. 1기 45명의 수강생으로 시작, 2011년 11기생 43명의 수강생이 입학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10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생 중 15명이 양주 홍보대사격인 문화관광해설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대학은 3년 과정동안 학습과 답사를 격주로 진행하며, 1학년은 기초교양과 양주중심의 역사를 배워가는 학습과정으로 구성되며, 2학년은 심화과정, 3학년은 실습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3년의 학사과정 졸업이후 수강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연구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국장 박재홍).

기초과정에서 조상의 슬기와 정신을 배운다.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강의뿐 아니라 진보-보수, 불교-기독교, 命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그것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한국사회를 지나온 어르신들과 함께... 어디서든 정치와 종교얘기는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활한 관계맺기 공식(?)으로 통했었다. 3년의 내공이 예민하지만 제대로 알아야하는 이런 주제로 강의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한 부분을 살아냈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라면 ‘나처럼 살기’를 바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공부시킨다는 말을 오히려 많이 하셨을 것이다. ‘잘살기’ 위해 고생을 거쳐야할 관문처럼 살았고, 배부른 미래를 위해 빈곤한 오늘을 기꺼이 살아냈던 어르신들은 지나온 당신들의 삶이 보잘것없는 일상의 축적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과거의 손때가 묻은 물건은 버



려야할 고물이고, 일상의 경험들은 하찮은 과거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거창한 사건과 사상이 아니라 생활의 습속과 경험으로 시작되었고, 시대적 상황이 문화를 만들어갔으므로 좋고 나쁨이나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것은 책상머리 교육 이전에 내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으로,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삶이라고 기억되었던 일상들도 현재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임을 알아가는 것, 나를 비롯해 옆 사람까지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임을 몸소 전율하는 기회, 이것이 역사를 통해 알아가는 사유의 힘일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있어 역사문화대학이 중요한 것은 역사를 매개로 서로 공감하고 교제한다는 것, 과거를 바탕으로 현실을 논할 수 있는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조상은 어디서부터일까. 나의 삶도 결국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어야 할 조상들의 삶으로 명명되어질 것이 아닌가. 내 삶은 비루하고 조상들의 삶은 슬기로운 것인가. 나의 삶은, 나아가 내가 살았던 동시대 역사는 보잘 것 없는 일상들만 남아있는가? 이런 되물음의 시작이 2년의 역사 학습과정을 거쳐 3학년의 마무리 과정에서 성찰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홍정덕 강사는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려는 어르신들이 이왕이면 생활사의 전문가가 될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후 잣물 내려 빨래할 줄 아는 어르신이 얼마나 계시겠는가? 우리지역의 종가집 제례가 제대로 전승될 것인가? 역사해설에서 머물지 말고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사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의 삶을 포함한 역사문화대학은 관념의 역사에서 실제의 역사로, 과거에서 현실을 불러내는 활동을 엿보게 된다.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은 자연스럽게 긍정의 역사로 재구성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는 역사라는 나무 가지 끝에 피어나는 무수한 나뭇잎과도 같다. 지나온 일상이 혹은 개인의 역사가 단지 개인사로 취급되어 묻힌다면, 그래서 개인의 삶에 대해 사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삶이 관여되지 않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삶은 전체성이므로...

## 우리 아이들, 마을이 함께 키운다! “의정부 문화원과 함께 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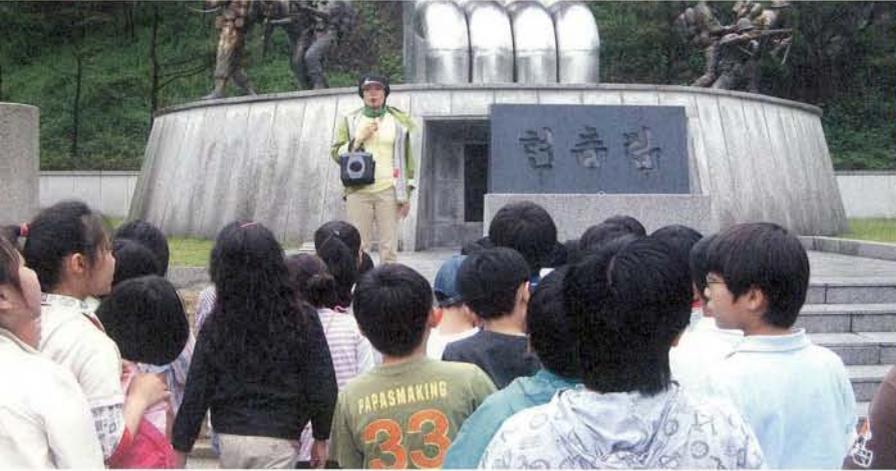


일상에서 얻어지는 사소한 통찰력!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게 한 시간이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몇 년 전부터 흔하디흔하게 불려다녔던 아프리카 속담이다. 책 제목으로도 사용된 이 말은 사람들에게 그 만큼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맞다. 울림이 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필요한 온 마을은 어떤 것일까? 온 마을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의정부문화원(원장 조수기)에서는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을 알기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의정부 시내 6개교가 참여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듬해 2004년부터 초등 31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초등3학년 사회과목의 내고장 알기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문화원은 매년 초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사전 계획서를 각 초등학교에 보낸다. 계획서를 받아 본 학교에서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을 수렴하여 일 년 동안 진행될 코스를 조정 한다. 당연히 학교마다 코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의 위치에 따라 체험 대상지가 변경되기도 하고, 6월과 9월에 집중해서 체험활동이 진행되지만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물론 아이들이 답사하기 전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먼저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하고, 답사도 다녀오신다. 또한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신입교사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답사를 진행한다. 한해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선생님이 참가한다. 이렇게 진행해온 덕에 교육지원청 관계자 선생님들은 “우리교장바로알기” 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 코스는 의정부의 문화재인 노강서원, 정문부장군묘, 송산사, 신숙주선생묘와 과학 도서관, 현충탑, 문화원, 시의회 등을 찾아 현장학습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을 기본으로 구성되며, 아프리카박물관, 서계 박세당 사랑채와 묘역,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자원회수 시설 등 문화재를 비롯해 박물관, 공공시설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코스 구성에는 매년 말에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우리교장 바로알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내용은 답사코스에 대한 만족정도, 해설사 진행에 대한 만족정도, 탐방수첩 활용도에 대한 만족정도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체험활동과 관련된 만족도와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변화 정도에 대한 문항과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이 5점 척도로 분석되고 있으며, 추가되어야 할 탐방 장소와 희망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바라는 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평가서 분석을 종합하여 차기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2011년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교사 52명중 하수처리장 탐방을 희망하는 교사가 16명으로 집계되었고,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15명의 교사가 긍정적이라고 응답을 해주었다. 특히 해설사 진행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수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주관식 자유기술 문항에서도 10명의 교사가 해설사의 설명이 좋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해설사설명에 대한 만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설 해주시는 분들은 2003년부터 2008년 기간에 원하는 학부모가 참여하여 인솔자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이다. 지금은 이분들이 전문해설사가 되어 진행해 주시고 있으며, 2009년에는 경기도지정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다. 아이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자 도우미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문해설사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에는 연간 6,00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교육지원청에는 담당 장학사분이 생겼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중에서는 찾아가겠다고 연락하면 옛 복장을 입고 정성껏 맞이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 시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짜여지면 담당 시의원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 맞아주시고 설명해주신다. 재활용 센터에서는 선물을 준비해서 방문한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한다. 문화원이 1년의 스케줄이라는 뼈대를 만들면 동네가 함께 살을 붙여가는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 1년쯤 지나고 나니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동네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욕심이 생겼다. 아마 진짜 고민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이미 시범단계를 지나 검증의 단계도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고장 바로알기의 변용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정부 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은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아이들에서 가족대상으로 확대해 보고자 시도했다.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맞다. 아이들이 알아가는 우리고장은 아이들만의 동네가 아니기 때문이고, 어른들과의 공감은 세대 간 소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00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의정부 사랑여행'의 탄생배경이다. 600여명이 참여하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예산 문제로 현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시도를 고민 중이다. 토요일휴업일이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면서, 위탁교육의 필요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초등 3학년 중심으로 진행했던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이제 대상의 확대를 고민할 차례이다. 토요일휴업일 제도는 해야된다 말아야된다는 논란의 단계를 지나버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할 시급한 단계이다. 실제 현장은 논리적인 판단 그 너머를



요구한다. 이제 진정으로 동네의 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문화원 3자가 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노력중이라고 한다. 또한 각 시설과 단체 등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자원의 결합도 필수적인 요인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동네의 노력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박정근 사무국장이 또 다른 숨은 속내를 조금 내보였다. 각 지역의 문화원들이 함께 공동 사업을 고민하여 '연합 공정 답사'를 개발하였으면 하는 제안이었다. 각 지역의 문화재 뿐 아니라 우리지역 만이 갖는 이야기가 담긴 코스를 개발하여 함께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늘려가자는 것. 사실 현재 시도군이라는 행정구역은 행정편의에 의해 구획된 것일 뿐 지역의 삶은 확연히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경험의 폭과 관점의 크기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보인다. 이런 지역 간 공동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체험학습 차원을 훌쩍 넘어선 다른 모습의 확장도 기대된다. 일부러 도농간 교류도 하지 않는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내재해 있다. 어찌되었든 문화원지회라는 공통분모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동네라는 화두는 시작이자 끝이다.  
좋은 정책도 지역 단위에서 집행되어질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 정책은 실현을 전제로 하며, 동네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 경기도 문화인물

한국문화의 중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 경기도 문화인물을 만나다

-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 | 한춘섭 (성남문화원 원장)
- 문화원의 달인 | 주인숙, 연구자, 윤미순 (용인, 시흥, 포천문화원 과장)
-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  
그 속에서 할 일을 발견합니다. | 장태환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위간사)
- 우리가 지켜야지요! |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

#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

-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을 만나다



지방문화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문화적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 원장이 진단하는 현재의 문화상황은 어떠하며, 그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인터뷰이다. (편집자 주)

말투에서도 삶에 대한 성찰과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성실한 지 인터뷰를 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다.  
 그를 통해 나뭇잎을 본다.  
 그 나뭇잎이 만들어 낸 거대한 나무를 본다.

● 처음부터 당돌한 질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원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원장님께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 저는 젊은 시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몇 안 되는 시조시인이기도 하지요.

저는 성남문화원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도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고, 향토문화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위원으로 성남의 향토문화역사를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원 부원장으로 문화원 일을 계속하다가 원장직을 맡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문화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화원이 해 나가야 할 지역사 자료 보존과 뿌리 찾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뿐이죠.

● 그렇다면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아무래도 성남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발굴,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이 문화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코드를 찾아내고, 그것을 역사적 바탕위에서 문화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문화원이라는 구조는 대단히 힘있는 구조입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 각 문화원마다 저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죠. 특히, 그 지역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 왔던 삶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게 하며, 삶의 긍지를 느끼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바로 문화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1개 시, 군문화원이 원장,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 광주문화권 협의회 운영과 가평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사업 노하우의 상호교환, 회원과의 긴밀한 친목 강화 등 대단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비단 성남뿐만 아니라 31개 시, 군이 사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 역사문화적, 회원 간 공동체 구축 등에서 보다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경기문화의 이 힘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勢)를 과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문화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지역 문화의 흐름이 변화하고, 31개 시, 군문화원의 방향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경기 문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 문화원마다 일을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남다르다는 것이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셨던 일 중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일이 있으실텐데,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 성남문화원의 사업은 보통 10년 이상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성남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세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성남, 광주, 하남시가 그것이죠.

남한산성은 조선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을 하고도 있죠.

앞서 말했듯이 문화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세 개의 문화원이 협동해서 무언가 만들어야 하지 않은 가하는 논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매월 11월 <순국선열추모제>를 3개 도시가 연합해서 개최하며, 학술토론회가 그렇고,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매년 <성남문화연구>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18년 전인 1994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성남향토문화총서>를 200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각 연구필진의 면모를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겸비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학술지입니다.

그만큼의 학문적 성과에 마땅한 대우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결코, 수준이 떨어지는 글이 아니죠.

아마도 성남의 역사와 문화 관련해서 이만큼 학술적으로 연구된 그것도 수준 높은 연구 자료가 집적된 곳은 문화원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시 정부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성남문화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제교류행사로 둔촌 이집 선생을 기리는 <둔촌 한시, 시조백일장>사업이 있는데, 중국 심양시 교육국과 협력하여 매년 중국 심양과 성남을 번갈아 가며 한시, 시조시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남문화원에서 강정일당을 시작으로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해 왔는데 지금 향토문화유적 제9호(청주한씨 청연공파 묘역)까지 지정해 왔습니다.

● 몇 가지만 들어봐도 성남문화원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지 맥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사업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세심하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조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학인으로서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 시조는 엄격한 한국의 문학장르입니다. 정해진 운율과 격식이 있죠, 그 안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때문에 시어로 사용되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운율에 맞추어 한 편에 담아야 하니까요.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출강 외 문화원도 매일 출근을 합니다만, 집에 가서도 거의 매일 집 필활동을 하고 삽니다.

## 2012 새 해 頌詩 시작 하기 좋은 날

한춘섭 (시조시인, 성남문화원장)

산이란 산 많아도 강이란 강 많아도  
금수레 굴리면서 새 날이 여기 온다.  
굽은 손  
한데 잠 자던  
이웃들도 돌아 온다.

나이테 한 금 굿기 누군들 쉬웠으랴  
눈자위 붉은 채로 버터 온 엄동설한  
숨소리  
거친 숨소리  
팽팽한 몸 저 소나무.

돌 城 안 칼바람을 잠 재운 호걸들이  
都邑地 한성백제 정한 뜻 알겠나니  
다시금  
이름을 떨칠  
성의 남쪽 城南이여!

시작하기 좋은 날은 여문 씨앗 묻어두라  
몇 代를 살고 지고, 살림 늘여 살고 지고  
壬辰年  
첫 장에 쓰는  
창창한 歷史日記

고려의 오백 년도 조선 開國 오백 년도  
왕조는 '한 오백 년' 노래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으리랴다  
천만 년 또 살으랴다.

# 문화원의 달인

- 나는 문화활동가다

주인숙 (용인문화원 과장)

연구자 (시흥문화원 과장)

윤미순 (포천문화원 과장)



어떤 직업, 직종이든 동료들보다 맡은 일을 능숙히, 요령껏 잘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 있다. 지게차나 포크레인을 세심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물건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박스에 포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심지어 순대를 썰고, 포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배로 빠르신 분도 주인공이시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일도 있지만, 박스포장처럼 '누구나 할 수는 있겠다.' 싶은 일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은 남다르다. 칼질 한 번,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정확하고 세심하다. 멀리서 보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이지만, 그들의 손을 클로즈업해보면 감탄이 절로난다.

문화원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직원들 중  
누구보다 능숙한 달인들은 누가 있을까

“아~오랜만이에요. 정말”

“네~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요?”

“도지회 사무실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문화원에만 있어요. 연수도 참가하고 우리 행사에 놀러도 와요.”

“가고 싶은데 저희도 일이 많네요.”

용인문화원 주인숙 과장, 시흥문화원 연구자 과장, 포천문화원 윤미순 과장은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는 반가움에 상기되어 있었다. 세 과장님은 2008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했던 일본연수에서 만났었다고 한다. 그때 일본가는 배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통했다고 한다. 서로 동년배이기도 하지만, 문화원을 생각하는 애정도의 무게가 남달라서이지 않았을까 싶다.

“문화원 있으면서 제주도랑 일본으로 연수 갔었던 기억이 제일 좋아요~호호호호”

“이런 추억 만들 수 있게 도지회에서 직원들을 위해 좋은 기회 만들어 주세요.”

### ● 가장 중요하고, 애착이 가는 사업이 있다면?

♣ 용인 주인숙 과장 : 애착이 가는 것은 문화학교 사업이죠. 옆 강의 실에선 난을 치고 있고, 위층에선 댄스교실이 열리고, 규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보면 참 행복해보여요. 전 그 마당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경연대회를 진행할 때, 문화원에서 주는 상장이 금박지 박힌 비싼 상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 입으시고, 온가족들이 와서 장려상 상장 한 장 들고 가족사진을 찍는 것은 보면 상을 받은 아이에게, 그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준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뿌듯하죠.



용인문화원 주인숙 과장 (1997년 입사)



시흥문화원 연구자 과장 (1997년 입사)

♣ 시흥 연구자 과장 : 저도 아무래도 문화학교 사업이에요. 축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원에 사람을 모이게 하고, 문화원 공간에 활력이 넘치게 하는 일은 문화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요. 새로운 강좌를 기획해서 모집하고, 모집 인원이 안 되면 폐강하고 다른 강좌를 기획하고...그런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진행할 때 힘들기는 해요. 한 수업 끝나면 전 직원이 다음 강좌에 맞춰서 책걸상을 밀었다 다시 배치했다가...

♣ 포천 윤미순 과장 : 저희 하모니카반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전국실버하모니카 연주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실버악단이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의 실력인지는 몰랐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은 하모니카를 정석에 가깝게 불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실버악단 어르신들은 스스로 연주를 즐기시는 거예요. 아! 저희 하모니카반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예요. 다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포천에서 섭외를 어떻게 했냐며 부러워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사실 섭외 전화를 할 때, 선생님께서 포천을 부천으로 들으시고는 수락하신 거예요. 다행이 일산이고 연세도 많으셔서 매년 힘들어서 그만두시면 어쩌시나 걱정하는데, 힘들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 하고 있어요.



포천문화원 윤미순 과장 (2007년 입사)

● 문화원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 시흥 연구자 과장 : 제가 시흥문화원 개관하면서부터 근무했어요. 직원들이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원장님도 바뀌는데, 7~8년차일 때까지는 문화원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단니까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

으니 괜히 미안하고 나도 문화원을 그만둬야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그 동안 문화원에서 겪은 이런 저런 일 얘기하면 눈물나는 일도 있어요. 문화원 상황 상 잠시 컨테이너에서 근무했었어야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름엔 실내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서 도저히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들고 계단에 앉아있고는 했었죠. 예전 합동연수 때 이천문화원 부원장님이신가가 절 보시더니 컨테이너에서 일할 때 절 보기가 안타까웠다고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고 그러셨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원이 제 성향이랑 맞아요. 그리고 시나 수필을 쓰는 문학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 **용인 주인숙 과장** : 문화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남편 소개로 갔었어요. 처음에 정산서 복사하는 일을 시키더라구요. 그 때 당시엔 일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장님과 저 두 분만 있고, 어르신들만 사무실에 찾아오셨었죠.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학원부터 등록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정말 문화원 주인이 나 같아요. '내가 문화원의 주인이다'는 마음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이게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 ● 문화원에 대한 이미지가 젊지는 않잖아요? 지역에서 어떤가요?

♣ **시흥 연구자 과장** : 정체성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정체성을 쉬운 말로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럼 '문화원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화원다운 것을 지키면서 현대와 소통을 해야지 문화원의 본래 모습을 잃고 시류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문화원이 지역의 정신적인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시료, 역사책, 사료라던가 인기가 없고, 돈이 안 되는 책이니까 아무도 안 만들잖아요.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본다고 이런 책을 만드냐라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문화원이 아니면 이 책을 만드는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찾는 자료이기는 하죠. '문화원다운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를 전달하려면 지금의 방법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에 젊은 피가 있어야해요. 저희 직원 중 3명이 40, 50대이고 30대 직원이 1명인데, 이 직원 덕분에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문화원을 알리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시각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젊은 직원들이 기획하면 사업도 젊어져요.

♣ **용인 주인숙 과장** : 문화원을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문화와 관련된

강좌나 행사를 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공존해야하는데, 사실 전통 문화 외의 것을 하면 '왜 문화원에서 그런 걸 하지?' 라는 시선이 있어요. 현대와 전통을 균형을 이루면서 사업을 해야 전 세대를 위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포천 윤미순 과장** : 저희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주민자치센터에도 문화강좌가 있으니 저희는 전통문화에 집중해요. 사실 스포츠 댄스 같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강좌까지 운영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지역의 특성 상 이용층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예전에 밸리댄스를 시도를 해봤어요. 역동적인 활동인데 여름에 냉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힘들고, 공간도 한정적이어서 잠정적으로 중단했어요. 얼마 전에 설화 그림책을 발간했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 ● 내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때인데, 각 문화원의 내년도 전망 어때요?

♣ **용인 주인숙 과장** : 직급이나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따라 매년 월급이 달라지니까 속상했어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지원되니까 처음에 비해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올해 획기적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던 문화원 예산이 본예산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경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았었는데, 그러다보니 지자체의 예산 변동에 따라 경상비가 깎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문화원은 다른 사회단체와 다르다고 원장님과 지자체에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줄면 당연히 저희 예산도 줄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 **포천 윤미순 과장**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본예산에서 일부 받았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받았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양쪽에서 받으니까 문화원이 다른 단체에 비하여 예산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되나 봐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편성이 바뀌었어요. 다른 문화원들은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지 궁금하네요.

### ● 오래 일을 해오시고 계신데 혹시 문화원에서 일을 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문화원의 강좌를 듣지 못하는 것이요!!"란다. 항상 문화예술이 숨쉬는 곳, 문화예술 감수성을 지닌 회원들을 보며 생활하다보니 스스로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한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진행 중인 강좌를 직원이 수강할 수는 없다. 용인의 주인숙 과장님은 한 번 시도를 해봤지만 과장님이 없으면 안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계속 들락거리는 것이 다른 회원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 다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문화원만큼 좋은 강좌가 없는데, 우리 것을 못 듣는 다"며 아쉬워 하셨다.

### ● 도지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용인 주인숙 과장** :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공문을 우편으로 주고받고, 전화도 자주했었는데 요즘엔 이메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류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원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은 행사나 회의가 많아 교류가 잦은데, 직원들끼리는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지회가 직원들의 모임을 비롯해서 문화원 전체 임직원이 모이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널에 직원들이 관심 갖고 읽을 수 있는 기사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 **시흥 연구자 과장** : 저희 얼마 전부터 문화학교 회비를 카드로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세무사무소에서는 문화원의 일을 잘 이해 못해서 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해요. 세금이나 회계 관련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 **포천 윤미순 과장** :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시 문화원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다르다.  
그들의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만큼 문화원에 대한 생각도 무거우리라.  
그 무거움에 비례하는 만큼 긍정적이다.

용인 주인숙 과장님이 "나이가 들어 문화원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문화원에서 강좌 듣고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라는 말에 두 분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4시간동안 나눈 많은 이야기보다도 이들의 문화원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

대중과 소통하는 진정한 문화를 꿈꾸는 문화인 장태환  
 털털하고 푸근했던 그의 인상만큼 그의 문화관은 사업지향이 아닌  
 바른 공동체문화에 있었다.  
 경계하고 닫힌공간속에서는 진정한 문화가 없음을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장태환** 의원을 만나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지역문화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정책의 핵심에 있는 문화행정가들, 그리고 정치인, 그들에게 문화원에 대해,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삶에 대해 듣고자 한다. (편집자 주)

p · r · o · l · o · g · u · e

그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걷는 모습도 옷차림도 꾸밈이 없고 소탈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허름한 식당에서 시작된 인터뷰는 장장 4시간이 넘게 진행 되었고, 도전적인 질문에도 솔직하고 거침  
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몇 잔의 소주와 곁들인 보쌈김치의 맛도 일품이었다.

마치 그가 살아온 인생을 탐험하고 돌아온 느낌이었다.

● 처음부터 다소 어려운 질문인데 정치인인 장의원이 생각하는 문화란 무엇입니까?

♣ 예. 문화라는 것은 나라, 인종, 시대에 따라 다르고, 끊임없이 계속 발전, 변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 문화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는 모습 그 자체를 문화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 조금 막연하고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아닌가요?

♣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문화유적이거나 율놀이나 연날리기 등의 전통놀이나 민요나 판소리 정도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보존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나 버릇은 문화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개성인 것이지요. 문화라고 하면 어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관습·경향 등을 큰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많은 문화가 생겼다가 소멸 된다는 말씀인데 현대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 의식주의 변화에 따라 생활의 형태 및 내용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주거 환경의 변화로 마을이나 가족 공동체 문화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해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 되고, 그 공동체가 예전과 다른 변화된 문화생활을 추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주제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문화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제만 맞으면 시간과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과 형태가 다르다고 지역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가 소멸 되었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규제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스럽고 대규모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통제 되지 않고 대규모로 생성, 확산 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 속에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마을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가족에서 각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존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문화는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식민지 시절이나 군사 정권 시절을 겪으면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 잡아야 했고, 냉전 논리에 의한 편협한 가치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많이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문화나 가치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문화의 보존 발전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중에서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문화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 정치는 높은 자리나,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현장에 정치가 있어야 하죠. 정치의 목표는 국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문화 혜택의 불평등이 오히려 물질적인 불평등보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문화적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갈수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현장에 가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라져 가는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고 재현함은 물론이고 안성이라는 지역을 홍보하고 상품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 축제 취지를 잘 살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문화행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전국 체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2011명이 함께하는 사물놀이는 너무나 감동적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역사, 문화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많은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지역문화 행사도 많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의 역사, 문화가 깃들여진 뜻있는 축제로 정착되어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지역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제들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행사로 변질되기도 하고, 소비성 오락이 주 된 경우도 있습니다. 축제의 성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조급함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어떤 문화 사업이든지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리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되고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갖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죠.

## ● 오랫동안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청소년 문화란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분명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지요. 기성세대가 볼 때 이질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그리고 때로는 반항적이지요.

그렇다고 기성문화는 옳고 청소년문화는 그르다 또는 성숙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청소년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말 속에는 “미성숙”, “순수”, “반항적”이라는 의미가 포함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환경에 내몰린 아이들이 그들만의 장소, 그들만의 소통을 위한 코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그들의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문화시설을 적극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청소년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의왕은 어떤 도시입니까?

♣ 의왕은 안양, 군포, 과천, 수원, 성남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경수산업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국도 1호선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시를 3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소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시 전체면적의 88.7%가 그린벨트이며 청계산 도락산 백운호수와 왕송호수등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많은 곳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살기 좋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 각 지자체는 지역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도 31개 시, 군에는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고, 살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심에 문화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개인주의적 삶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뿌리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하고, 그런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기 때문이죠.

문화원이 그 뿌리를 찾아 지역이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근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문화가 무엇이나? 아마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정치인으로서 지향하고 있는 삶은?

♣ 제 정치 철학은 “소통”입니다.

민주정치의 생명은 서로를 배려하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끝없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 갈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항상 낮은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필요한 곳에서 생활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범하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원지킴이

## 우리가 지켜야지요!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

문화원 일이라면 내 일처럼 도와주시고, 어떨 때에는 실무자보다 더 문화원에 대해 잘 알고 문화원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함께 지역 문화를 위해 애쓰고, 좋은 일엔 같이 기뻐하고, 바쁜 일은 나눠하고, 혹여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사무국에 따뜻한 마음 전하시는 열혈 문화원 회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번 호에는 동두천문화원의 부설 기관인 '동두천예절원'을 찾아갔다.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은 2006년 3월 전통예절을 배우고 익히며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동두천문화원의 전통예절반으로 시작되어 2008년도 9월 구 광암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동두천문화원부설 예절원으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절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 성년례, 예절반, 다도반, 청소년 교육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기업체 등을 찾아가 일상 생활에서의 예의 등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복입기, 차례지내기, 인사법, 다도생활예법 등 강습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돕고 있다.

예절원의 중요한 또 다른 사업은 전통결혼식 개최이다. 예절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의 전통방식에 따른 혼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전통결혼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진행되는 전통 결혼식은 결혼하기 좋은 날을 택하여 '다문화가정으로 전통혼례식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신랑, 신부와 저소득층으로 결혼을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동거가정이나 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신랑, 신부'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지들뿐만 아니라 시장, 시의장, 시의원, 각급사회단체장, 문화원 회원들도 하객으로 초대된다. 전통혼례식이 끝난 후에는 동두천문화원 여성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족과 친지는 물론 혼례식에 참석한 일반시민들과 나눠 먹으며 한껏 잔칫날 분위기를 돋운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들은 각자들의 상황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지만, 시민이면 누구든 초대받는 결혼식이니만큼 아마도 동두천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신랑, 신부가 아닌가 싶다.

본 인터뷰는 지난 12월 8일에 열린 전통 혼례식의 리허설이 있었던 12월 6일에 진행되었다. 그 덕에 리허설을 참관할 수 있었다.

전통혼례식 리허설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결혼식 도우미들이 식순에 따라 전체 시나리오를 익히는 시간으로, 동두천예절원의 예절 전문 강사들이 도우미로 봉사하신다. 선생님들은 소품 하나 챙기는 것부터 상차림, 신랑 신부의 한복 대여, 좋은 미용실 소개, 이국땅에서 오지 못하는 신부의 어머니 역할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다.

2부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친다. 손의 위치, 팔의 각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 절하는 속도 등 요즘 젊은 한국 신부들도

가장 어려워 한다는 한복입고 큰절하기는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3부는 주인공 부부와 도우미들이 혼례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결혼식 당일 일찍 만나서 예복을 갖추어 입고 또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한다.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예절 강사 선생님들은 당신들의 동생이나 딸 시집보내는 것처럼 신부들을 향한 손길과 마음이 곱고 애뜻했다. 신랑이 고운 한복 한 벌쯤은 해줬으면 하시고, 신부들이 낮선 동네에서 헤맬까 손수 괜찮은 미용실을 물색해주시고, 혹여나 미용에 무관심한 신랑들이 예약시간 늦을까 싶어 계속 당부해주시고, 길 못 찾을까 싶어 리허설이 끝나고 미용실까지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다.

올해는 예산이 넉넉지 않아 하반기에만 전통혼례식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년 예산에 따라 예절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규모가 달라지는 점이 운영의 애로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예절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기에 김임순 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절 강사들이 봉사하고 있으시란다.

## I · N · T · E · R · V · I · E · W

## 다른 예절원과 다른 동두천예절원, 문화원만의 특색이 있다면요?

“글쎄요, 다른 예절원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전통혼례 방식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음... 굳이 하나 꼽자면 저희는 작은 것 하나까지 전통적인 것, 우리의 것, 원래의 것으로 갖추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다도 세트의 개수를 몇 개 이상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좋은 것, 올바른 것으로 갖추어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그릇이나 상의 종류, 품질 등의 차이를 잘 몰랐죠. 소반은 다 같은 소반인 줄 알았는데 상다리의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어디의 무엇이 좋다더라 그러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공부하고, 하나라도 전통적인 것, 좋은 것으로 필요한 물품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예절원 살림살이 채워가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 바닥에 전기온돌 설치도 이번에 했어요.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교육진행할 수 있어요.”

## 혹 예절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학교의 요청을 못 들어줄 때 안타깝죠. 사실 한 교시 이론 수업만 해도 아이들이 교실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혼례를 올린 부부들과 계속해서 연을 맺어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서인지 예절원이나 문화원 강좌를 즐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만나고 사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예절원 위치가 외져서 시민들이 아직 예절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절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예절교육은 물론 다도교육, 예절강사 양성,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통혼례를 치러주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봉사해야죠.”

## 지난 12월 8일, 혼례를 올린 두 쌍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부 (사진의 왼쪽)

신랑 : 후안카를로스 리베라아레발로  
(페루 출신, 이주 17년차, 한국으로 귀화)

신부 : 모니타 아쿠냐  
(페루 출신, 이주 9년차, 한국으로 귀화)

두 사람 다 페루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페루인들의 파티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미 부부가 된지는 6년이 지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과 아들도 있다. 전통 혼례식을 하기로 한 이유를 물어보니 귀화를 하여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한국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한다. 추석과 설날에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한국 명절 음식을 즐기며, 윷놀이 등의 전래놀이도 한다는 이 가족은 정서적으로도 이미 한국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부 (사진의 오른쪽)

신랑 : 김하중

신부 : 리엔(베트남, 2011년 3월 이주)

한국 사람과 국제결혼을 한 리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는 두 사람은 예절원에 들어설 때부터 나설 때까지 시종일관 싱글생글 밝은 표정이었다. 리엔은 이미 올 3월에 한국으로 와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컴퓨터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곧잘 한국어를 잘 알아들었고, 큰절도 쉽게 배웠다. 리엔이 베트남에 있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고된 일을 꽤 많이 했었다라며 안타까운 미소와 함께 수줍게 리엔의 손을 꼬옥 잡던 신랑과 천진난만한 얼굴로 한국이 좋다는 신부. 예절원 선생님들은 그들을 보고 있으니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고 하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부부의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닐까 싶다.



# 경기문화저널

한국문화의 중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 경기도 역사문화

- 두레와 길림의 조화로운 연희(演戲), 웃다리 평택농악(平澤農樂)
- 연천민통선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여행 연천문화기행
- 안양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 두레와 걸립의 조화로운 연희(演戲) 웃다리 평택농악(平澤農樂)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수도권, 충청권과 강원 일부를 아우르는 풍물, 웃다리 농악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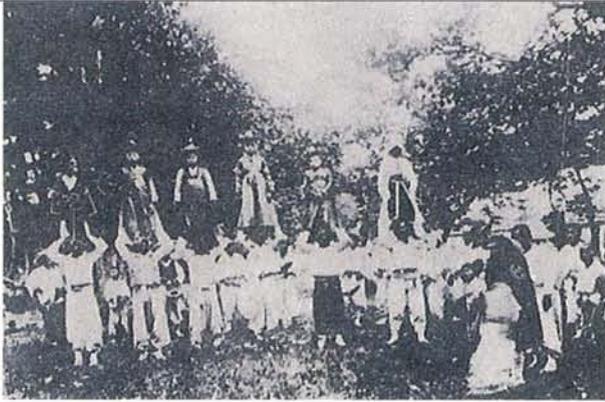
**일**찍이 이 땅의 사람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하여 농사를 기러왔다. 그럼으로 농악을 가상히 여겨왔고, 장구한 역사와 전통위에서 상식화되고 나아가 고유한 지방색을 띠며 향토문화로 발전해 오는데 이르렀다. 농악은 우리 선조들의 감정과 직감이 낳은 문화유산이며, 우리민족의 심성이 가장 잘 표현된 민중의 음악이요 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평택농악이 속한 웃다리농악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산악지역의 호남좌도농악, 전라도 평야지역의 호남우도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태백산맥 너머의 영동농악 등으로 나누어진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농악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6개의 농악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다.



특히 웃다리농악은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울, 인천 수도권과 대전·충청지방, 강원도 영서지방에 전승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강원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





장 대표적인 농악으로 1985년 12월 1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로 지정되었다.

평택농악은 두레풍물과 걸립풍물굿을 가장 잘 계승한 웃다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풍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두레농악에서 하던 지신밟기, 두레굿과 더불어 난장굿, 절걸립, 촌걸립 등 걸립패에서 하던 전문연희패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형태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彭城邑) 평궁리(平宮里)는 평택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km쯤 떨어져 있는 농촌마을이며 행정구역은 팽성읍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옛 부터 지신(地神)밟기, 두레 굿 등 여러 농악을 세계 쳤다. ‘평택농악(平澤農樂)’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 시절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였다.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崔殷昌) 선생은 당시 평택군의 요청으로 농악패를 구성해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나갔다. 지금의 광화문인 중앙청 앞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평택농악은 1958년과 1959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평택농악의 이름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된 것이다.

평택농악의 계보를 이야기 하자면 유세기 선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세기 선생은 1893년 태어나 전국 5대 남사당 놀이패인 진위패를 육성한 가문으로 농

악, 시조 등에 조예가 깊어 제1대 한국농악협회장까지 역임했으며, 유세기의 부친은 당시 봉남리 진위현청 앞에서 술을 만들어 파는 술전을 대대적으로 경영하는데 전국에서 농악에 소질 있는 자들을 종업원으로 등용하여 평소에 농악을 연마시켰다. 조선 고종 4년(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자 경복궁 건축 위안공연에서 대원군으로부터 ‘진위군대도방 권농지기’라는 농기(都大房旗)와 3색의 어깨띠를 하사받고, 당시 상쇠 김덕일에게 ‘오위장(五衛將)’이란 벼슬을 내려준 사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진위농악이 경기농악을 대표했으며, 전국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던 것이다.

평택농악이 현재와 같은 편제를 갖춘 것은 1980년대 부터다. 지금은 작고한 상쇠 최은창(崔殷昌) 선생과 수법고 이돌천(李堧川) 선생 등 명인들이 평택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살면서 농악을 쳤으며, 1980년에는 최은창 선생이 중심이 되어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특별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1985년 12월 최은창, 이돌천 선생이 평택농악 예능보유자가 됐으며, 이듬해인 1986년 12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 평택농악의 보유단체로 평택농악보존회가 지정받게 된다.

## 웃다리 평택농악을 일궈낸 명인들

지금의 평택농악이 있기까지 큰 업적인 남긴 최은창(崔殷昌) 선생은 1914년 4월 18일 평택군 팽성면 원정리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부친 최상순 씨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출생 직후 평택농악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평궁리로 이주한 후 마을 동기래패(두래패) 상쇠에게서 팽과리를 배워 16세 때 두래패의 팽과리를 쳤고, 26세 때에는 이원보 상쇠에게서 장구와 팽과리를 배웠으며, 이원보 농악단의 끝쇠를 쳤다.

성인이 되면서 마을단위를 벗어나 촌걸립을 하는 전문연희패에 가담하게 되고, 절걸립패에도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는 독립하여 직접 절걸립 행증을 꾸려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장고잡이로 비나리꾼으로 쇠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40세 때에는 남운룡악단(南雲龍樂團)에 들어가 장구를 치다가 부쇠를 쳤다. 48세 때에는 절걸립패 상쇠로 나서서 북한산 태고사, 인천 연화사 등 수 많은 절의



중수에 절걸립패를 이끌고 시주를 걷었다. 이후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하던 최은창 선생은 1985년부터 평택농악 상쇠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다 2002년 작고했다.

최은창 선생과 함께 평택농악을 이끌어 온 이돌천(李斗川) 선생은 장호원에서 태어나 10세때 천안으로 이주해 16세 때 마을 상쇠에게서 쇠를 배워 쳤고, 17세 때에는 충북 출신의 박지삼에게서 법고(법고)를 배웠다. 18세 때에는 남운룡(南雲龍) 밑에서 법고를 배워 남운룡농악단의 법고수로 있었다. 그 뒤 평택농악과 천안농악에서 적을 두었으며, 1980년 평택농악을 공식 결성할 때 합류해 1985년 법고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활동해오다 1994년 작고했다.

현재 평택농악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래(金容來)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13살 때 용곡마을 두래패에서 무동으로 농악에 입문해 16세부터 대전 송순갑 행중과 안성 남운형 행중에서 활동하다 18세 때 상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승이 바로 평택농악의 명인 이돌천 선생이다. '남사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1982년 평택농악에 들어왔으며, 2008년 평택농악 법고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으면서 팽성읍 평궁리 평택농악전수회관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와 살고 있다.

이밖에도 평택농악의 초창기 단원으로는 방오봉, 김육동, 유준, 황홍엽, 이성호, 이경일, 이민조 선생 등이 있으며, 안성남사당보존회 회장인 김기복 선생도 오랜 기간 평택농악단에서 활동했다.

## 두레와 걸림이 만난 전문연희패 웃다리 평택농악



평택농악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최은창 선생이 평생 거주해 온 평궁리, 넓게 잡아도 평택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두레패 성격의 농악이요, 또 하나

는 최은창 선생이 성인이 된 이후 넓은 지역을 유랑하면서 활동하던 전문연희패 성격의 농악이다. 평택농악이 두레패의 성격에만 머물렀다면 웃다리 지역을 포괄하는 농악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요, 전문연희패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다면 농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레농악의 대동적 신명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웃다리 평택농악은 가락의 종류가 많지 않은 반면 변주가 다양하다. 또한 가락이 빠르고 힘이 있으며 맏고 끊음이 분명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독특한 가락으로는 칠채와 잣은삼채라 불리는 짹짹이가 있다. 판굿은 굿패들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를 보여주기 위하여 벌이는 풍물놀이이다.

웃다리 판굿은 보통 45명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호적수가 따르며 그 뒤로 쇠, 징, 장고, 북, 법고, 무동 등이 이어진다. 평택농악의 판굿은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당산벌립 대형과 무동놀이가 가장 큰 특징이다.

평택지역에서는 정초에 지신밟기, 여름철에 두레굿, 겨울철에 걸림굿에 농악을 크게 쳤고, 초파일에 등대굿, 단오날에 난장굿을 쳤었다. 마을굿인 대동굿(당굿)은 만신이 하였으며, 전라도에서 행했던 선달그믐 밤에 치는 매굿은 이 고장에서는 치지 않았다.

### ●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정초에 마을의 풍물패가 모여 집집마다 돌면서 풍물을 치고 지신을 밟아 주며 고사를 해주고

쌀과 돈을 추렴하는 세시풍속으로 정월 2, 3일부터 보름까지 하는데 선달에 풍물을 장만하여 두었다가 정초에 지신 밟는 날 오전에 쇠꾼들이 서낭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당에 가서 당굿을, 마을의 큰 우물에 가서 샘굿을 치고 집집이 집돌이를 한다.

### ● 두레굿



두레굿은 두렛일을 할 때 협동심을 북돋우고 힘든 노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는 역할을

을 한다. 두레굿은 모내기에서 시작되어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날까지 주로 행해졌다.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백중날은 백중놀이 또는 호미씻이라고 하여 마을 공터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풍물을 치며 걸판지게 논다. 그 동안에 힘들었던 노동의 피로를 마음껏 풀어내는 것으로 두레에 두레풍장이 딸린다. 평택농악의 두레굿은 1984년 최은창 선생이 주도해 평택농악보존회에서 처음으로 복원한 후 매년 평택 군민의 날 때 백중놀이의 하나로 재연해 보였다.

### ● 걸립굿



걸립굿은 촌걸립패와 절걸립패가 가장 흔하다. 촌걸립은 어떤 공동체에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특별한 경비를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전문연희패와 계약을 맺는다. 연희패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고사를 통해 축원 등을 해 주며 그 대가로 돈이나 곡식을 받는다. 모아진 재물은 걸립을 요청한 쪽과 연희패가 계약에서 정한 지분대로 나눈다. 절걸립패는 사찰을 수리하거나 증수하는 등 절에

서 쓸 비용마련을 위해 절과 연희패 간에 계약을 맺고 행하는 걸립이다. 연희보다는 고사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이름난 고사꾼들은 대개 절걸립패에 많았다. 쇠꾼들을 많이 쓰면 진행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중은 대개 7~8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였다.

### ● 난장굿

난장굿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날 외에 임시로 특별히 열리는 장날에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평택지역에서는 주로 명절을 맞아 난장을 텃으니 '파일난장' '백중난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난장이 열릴 때, 보다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을 끌어보아 시장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필요했다. 이런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예를 가진 풍물단체를 불러다가 장터 한가운데서 굿을 놀게 했으니 이것이 난장굿이다. 파일날에 연희를 놀면 파일난장굿이고, 백중날에 놀면 백중난장굿이라고 했다.

### ● 판굿

판굿은 굿패들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와 재주를 보여주기 위하여 벌이는 것으로 지신밟기나 걸립을 하면서 집집마다 마당씻이로 하던 농악놀이가 확대된 것인데 본격적으로 판굿이 발달한 것은 전문연희패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평택농악의 판굿은 인사굿-돌림법고-당산벌림1-



오방진-당산별림2-사통백이-합동 좌우치기-가새 발림-찍찍이 춤(연풍대)-돌림법고-개인놀이(따범고, 장고놀이, 상쇠놀이)-버나놀이-무동놀이-열두 발 상모놀이(채상놀이)-인사굿 순으로 진행된다.

평택농악의 판굿은 빠르고 힘 있는 가락에 맞추어 진풀이도 생동감이 넘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전문연희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굿패 구성원 개인의 만족보다는 구경꾼들과 함께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무동놀이(동리)는 평택농악 판굿의 백미다. 맞동리로 시작하는 무동놀이는 던질사위, 3무동, 만경창과 돛대사위, 앞뒤곤두, 5무동의 곡마단과 동거리 등으로 이어지면서 구경꾼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이다.

### ● 고사소리

평택농악은 걸립을 주로 했던 전문연희패의 성격상 고사소리 즉 비나리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평택농악의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 선생은 그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비나리꾼으로 인정받았다. 지신밟기나 걸립을 할 때, 화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기를 비는 사설이 여러 군데 들어간다. 이 중 짧고 간단한 것을 지신풀이라고 하며, 마지막 대청마루에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하는 소리를 보통 고사소리 또는 비나리라고 한다.

최은창 선생과 더불어 이성호 선생도 고사의 명인으로 오늘날 사물놀이패 비나리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장고잡이이긴 하지만 이영옥 선생의 고사소리도 걸쭉했고, 김용래, 김육동, 이영옥 선생이 받아주는 뒷소리는 고사꾼의 소리를 푸짐하게 받쳐준다. 김용래 선생이 치는 고사반주 북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정평이 나 있다.



## 세계에 울려 퍼지는 웃다리 평택농악 가락

평택농악은 최근 들어 단원들의 기량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2004년 발족한 평택농악발전연구회의 연구 활동과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 둘 표출되면서 부터이다.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에 대한 연구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 왔으며, 연구 결과를 평택농악 발전을 위해 하나 하나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평택농악을 비롯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5대 농악이 한자리에 모여 판굿을 벌이는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개최, 평택농악 단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수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시행한 ‘상임단원 제도’, 평택호에 착공해 2011년말 준공한 평택농악마을 등은 평택농악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평택농악은 또 매년 100여회가 넘는 국내 공연과 함께 4~5차례의 해외 초청공연을 펼치고 있다. 대만 세계타악페스티벌, 터키 체리축제, 중국 상하이 트페스티벌, 일본 마쓰리축제, 독일 카느발데아쿨투언 등 해외 초청공연을 통해 평택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평택농악은 2012년 올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다.

평택은 오래전부터 국보급 예인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 평택농악을 만들어낸 산 증인 최은창 선생과 이돌천 선생은 평택농악과 함께 농고동락을 하다 생을 마감했으며, 현재는 김용래 선생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이전에는 평택군 송탄면 출신의 호적 잼이 송창선 선생이 남사당 꼭두각시로 활동했으며, 포승면 출신의 지영희 선생은 해금 시나위의의 명인으로 우리나라 국악을 체계화 시킨 국악계의 선각자로 불린다. 또 판소리 중고제의 명인으로 조선 후기 8대 명창으로 분류됐던 모흥갑 선생은 평택에서 태어나 활동했으며,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으로 말년에 10여년간 평택에 거주하며 판소리에 열중하다 작고한 명창 이동백 선생은 동편제의 거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일곱 분이 평택에서 태어났거나 적을 두며 활동해온 인간문화재들이니 평택은 가히 예향의 고장이라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평택은 질박한 서민의 정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끼안을 줄 알고, 그들이 터를 잡아 생활하도록 배려할 줄 아는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러한 토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평택농악과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적 문화자원으로 뿌리내리고 번성하는데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 연천민통선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여행 연천문화기행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준용

전란으로 인한 피폭(被爆)과 소실(燒失)위에 건립된 연천의 유적

연천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이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국경을 맞대고 각축을 벌이었던 지역으로 당포성과 호로그루성, 은대리성 등과 같은 고구려성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다. 6.25전란 중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전장의 중심이었으며, 한반도 중 유일하게 전쟁 전 38선과 전쟁 후 휴전선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안보의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민통선과 군사지역은 전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리가 안고 있는 전쟁의 흔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으며 만들어진 슬픈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 연천의 문화유적

연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께 연천의 문화유적과 함께 투어 코스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연천은 수도권과 그리 멀지 않아 서울 어느 곳에서든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연천을 오는 길은 2가지인데, 하나는 의정부를 거쳐 동두천으로 오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자유로를 타고 문산을 거쳐서 오는 길이다.



경순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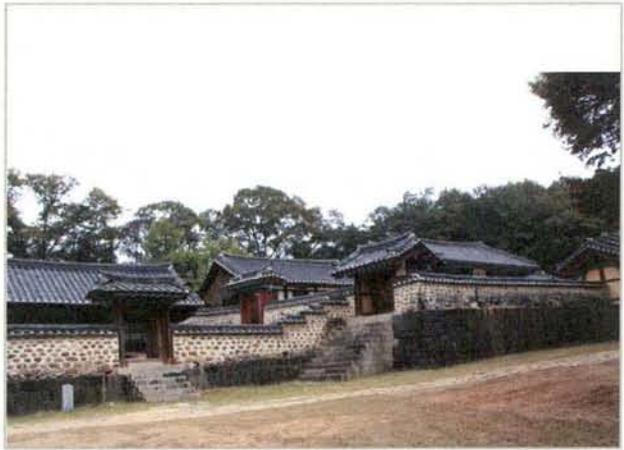
이곳에는 자유로를 거쳐 문산 쪽으로 오는 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하고자 한다. 문산을 지나 37번 국도를 따라 오다보면 장남면으로 빠지는 나들목이 있다. 이곳에서 빠져 나와 장남교를 건너 고랑포구 쪽으로 오면 국가사적 제 244호인 경순왕릉을 관람할 수 있다. 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의 능이 왜 연천 그것도 민통선 남방한계선에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은 경순왕릉 문화해설사

가 재밌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경순왕릉을 관람하고 해설을 듣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경순왕릉에서 약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적 제467호인 호로그루라는 고구려의 성이다. 남한 내에는 총 3개의 고구려성이 있는데 이 3개의 고구려성이 모두 연천에 있다. 아차산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성이라기보다 보루(초소)에 가깝다.

3개의 고구려성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호로그루성이다. 광개토대왕이 백제의 관미성을 함락하기 위해 이 성에서 약 2개월간 머물렀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군사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성터에서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보수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판자를 측면에 대고 성을 쌓는 초기 백제계의 판축(版築)에 이어 판축 바깥에 돌을 쌓고 자갈로 다진 고구려계의 석축(石築), 그리고 석축 바깥쪽 하단에 돌기단을 쌓은 신라계의 축성법이 차례로 나타나 백제·고구려·신라가 이 지역에서 각축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안내 해설사는 상주하지 않는다.)

호로그루성을 둘러본 후 점심시간이 가까웠다면 장남면의 매운탕촌을 둘러보자. 맑고 깨끗한 임진강에서 잡아 올린 민물고기 매운탕이 일품이다. 점심시간이 좀 이르면 국가사적 제223호 승의전을 관람한 후, 승의전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버섯전골로 점심을 해결하면 된다. 버섯전골에 연천을 무막걸리로 목을 축이면 피로가 싹 가신다. 승의전(崇義殿)은 남한 내에 있는 고려문화를 상징하는 유일한 유적지로 고려왕실의 종묘이다. 승의전에는 고려의 태조·현종·문종·원종 4위 왕의 위패와 고려 16공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봄과 가을에 각 한 번씩 제례를 올린다.



승의전

이제 동이리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468호 당포성을 가보자. 당포성은 현재 전곡읍의 서북쪽 임진강 북안과 그 지류에 형성된 천연 절벽을 이용하여 축조한 평지성이다. 서쪽 부분이 뾰족한 모양인 삼각형 형

태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가로막아 쌓은 동쪽 성벽은 매우 높게 구축되어 있으며 단애지대를 따라 구축된 남·북 성벽은 낮게 축조되었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변에 위치한 은대리성이나 호로그루와 매우 흡사하며 특히 축조방식은 호로그루와 매우 밀접하다. 서쪽 끝에서 동벽까지의 길이가 200m이며, 동벽의 길이는 50m, 전체둘레는 약 450m 정도이다. 현재 잔존 성벽은 동벽 6m, 단면 기저부 39m 정도이며 성내부로의 출입 때문에 동벽의 남단은 성벽이 일부 파괴되어 출입로가 만들어졌고, 북단의 경우에는 참호 건설로 인하여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안내 해설사는 상주하지 않는다.)

당포성 동쪽 약 500미터 지점에 근대문화유산 제408호로 지정된 유엔화장장이 있다. 이 유엔화장장은 세계에서 유일한 전시 임시화장장으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영연방 보병 29여단에서 금굴산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자 전투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 주변의 막돌과 시멘트를 이용, 허튼 쌓기로 건립을 하였다. 마을 원로들의 전언에 의하면 시신이 이곳에 당도하면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예식을 진행한 후 화장을 했다고 한다. 휴전 후에도 영국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1954년에 철수했다. 현재 지붕은 없고 시신을 화장하던 화덕과 벽면만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전곡 선사박물관을 관람하자. 선사유적지는 무료입장이었으나 최근부터 관리를 위한 입장료를 받는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인 1,000원씩이며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이다.

그 외에 군남면 선곡리의 군남댐에 조성된 두루미 테마파크, 왕징면 북삼리의 허브랜드, 중면에 있는 태풍전망대도 이색 관람 코스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취향에 따라 한 군데 정도 더 둘러보고 연천 기행을 마치면 좋다.

### 두루미 테마파크

군남댐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리 잡은 1만9000㎡ 넓이의 두루미 테마파크는 이 일대를 찾아오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주제로 꾸몄다. 공원 안에는 두루미의 일상, 먹이, 양육, 비행 등을 주제로 설명은 물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20여 마리의 두루미 조형물이 잔디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판에 QR코드도 붙어있다. 그 외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도 소개하고, 초록·파랑·분홍색 종이학 모양 조형물도 솟대처럼 서 있다. 공원에는 산책로, 벤치는 물론 강기슭을 따라 거닐 수 있도록 200m 길이의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 허브빌리지

군남댐에서 남쪽으로 약 4km 내려와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임진강을 건너 왕징면 북삼리의 허브 빌리지를 관람하는 것도 권해보고 싶다. 허브빌리지는 약 5만7000㎡ 규모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허브 마을이다. 아기자기하게 꾸민 다양한 정원과 허브를 소재로 한 체험공간, 식당, 찜질방, 허브용품점 등을 두루 갖춰 인기가 높다.

### 태풍전망대

태풍전망대는 북한과의 거리가 약 800미터 거리로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북한 측의 초소와 마주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진강이 휘감아 돌아가는 풍광이 볼만하다.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북한의 댐인 4월5일댐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민통선 지역이어서 출입절차가 까다로워 반드시 오후 5시 이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 태풍전망대



## 안양문화기행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글 : 안양문화원 간사 오미경

유적지 설명 : 안양시향토사료실상임위원 김지석

‘관양동 청동기유적지(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산 15-3)’는 현재「안양 관양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동편마을 입구의 물레방아에서 이정표를 찾으면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정표의 화살표 방향을 확인한 후 약 70m 완만한 벚나무 길을 오르면 수풀 사이로 보호각이 보인다. 계단에 올라서면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라는 안내판이 우뚝 서서 반긴다.



안내판에는 지난 200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권 광역상수도6단계사업」을 위하여 상수도관이 매설되는 이 일대를 발굴조사 하던 중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집터 유적’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

된 유물로는 펜석기, 구멍무늬토기, 가락바퀴, 반월형돌칼, 돌창 등으로 안양역사관 향토사료실 제1실에 전시되어 있다.



보호각에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3호와 4호의 유구가 복원되어 있다. 복원된 4호 주거지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형태를 볼 수 있도록 지붕을 1/2만 복원한 움집으로 움의 깊이가 알아지는 반움집의 형태로 동서방향의 수혈식 장방형으로 기둥자리가 3개이며,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다. 복원된 3호 주거지는 남북방향의 수혈식 장방형으로 기둥자리 2개와 화덕자리가 2개가 있으며, 그 자리에서 칸막이를 할 수 있는 기둥자리가 있다. 4호 주거지는 면적이 작으면서도 기둥이 3개인 반면, 3호 주거지는 면적이 넓으면서도 기둥자리가 2개인 이유는 건축기술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두 주거지의 바닥은 불다짐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 바닥의 중앙에는 지붕을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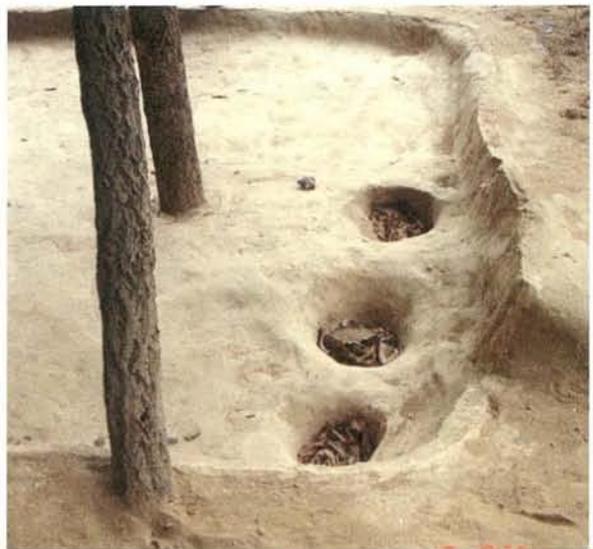


위한 기둥구멍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을 뽕 그  
 을음 자국이 보이는 화덕자리가 있고 채취한 곡물  
 이나 열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구덩이가 있다. 주  
 거면적의 규모나 저장고의 크기를 보면 최소한의  
 공간과 먹거리로 생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유적지는 보호각 안을 슬쩍 들여다보고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  
 다”라는 말처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잠시 상상  
 의 나래를 펴 보면 좋을 것이다.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선사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선사인들이 뒷산 관악산에서 사냥하고, 열매를 따  
 고, 앞강 학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움집으로 가서  
 화덕 앞에 오순도순 둘러앉아 정겹게 나눠 먹는 평  
 화롭고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 풍족하진 않지만 주  
 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해맑은 미소로 그 시대를  
 살았을 우리 선조들... ..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는 운동화 챙겨 신고, 천천  
 히 걸으며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관양1동 ‘동편마  
 을’에 있는 ‘관양동 청동기유적지’를 찾아가보자.  
 그곳에 가면 선조들의 원초적인 삶의 흔적에서 작  
 은 행복을 크게 웃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 경기문화저널

한국문화의 중심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 경기도지회 2011년 이야기



-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3色 토론회
-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 짱! 짱이에요. 국악공연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 경기도 시낭송의 밤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
- 제13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 발간소식

##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경기도 문화유산의 재발견, 각 지역의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로 가치 창출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오용원)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이 공동으로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를 가졌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토론회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고유한 문화자원을 품고 있는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떠오르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경기도내 문화유산원형을 간직한 상징을 선정해 지자체의 특화된 문

화자원으로 개발하여 향후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에 대한 가치 공유 및 보존, 활용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2010년 “경기문화상징 토론회”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상징 원형을 1차로 취합했던 것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기 취합된 문화원형을 소재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총 6개 지역(과천, 성남, 용인, 의정부, 평택, 하남)의 지방문화원이 참여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토론회를 위하여 사전 기획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작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문화유산원형을 활용한 실현성 높은 사업안이 총 6개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각각의 사업안들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세부 주제
과천	“추사 김정희”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성남	“모란시장”의 관광자원화 방안
용인	“할미산성” 문화콘텐츠 개발
의정부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뮤지컬 의순공주”
평택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관련 지역브랜드 개발
하남	도미설화의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콘텐츠 및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았다.

이날 발표된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은 “지역문화원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각 지역을 상징하는 것, 즉 건축과 미술, 음악 등에 있다”면서 “문화원형은 오랜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정서가 스며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더듬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빈 재단 대표이사도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며 국가적 역동성의 근간이지만, 경기문화의 정체성 조형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경기문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사업 개발을 시도할 때”라며 “그 첫 번째로 31개 시·군의 토속적인 ‘문화유산원형’을 간직

한 다양한 상징을 선정해 지자체의 특화된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이후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이택광 교수(경희대 영미문화전공)는 6개 발표 사례에 대한 국외사례를 비교, 논평하였으며, 류정아 박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는 추진 중인 지역브랜드 방향 및 진행시 유의할 점에 대한 논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정영선 이사(주/브랜드 스토리 기획이사)는 실천적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향후의 진행될 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해 온 과정 및 향후 진행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3色 토론회

- 지방문화원의 핵심주체별로 향후 경기도 문화원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시간 가져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경기도 시·군 문화원의 관계자들이 모여 핵심주체별로 향후 경기도 문화원의 발전방향을 고민해보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3色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사회로 변화되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오늘날, 핵심 미래발전 전략으로 지역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보급, 전승 사업을 펼치며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31개 시,군 문화원이 한데 모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경기도 문화원 및 각 구성원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경기도지회에서 2011년에 도내 시,군 문화원을 직접 방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실시한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원의 주체별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문화원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인 문화원장 및 이사, 사무국장, 실무자 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보았다.

시,군 문화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Section1에서는 [문화원장의 역할과 지방문화원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지회장이신 오용원 지회장님의 사회와 기초발제를 바탕으로, 포천문화원의 이만구 원장님께서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발표 후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수장으로서 지역에서 문화원의 위상과 그에 맞는 사업 및 조직 운영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각 지역별 비전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Section 2는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사업]이라는 주제로 평택문화원의 박성복 사무국장님의 사회로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의 양원모 팀장님의 기초발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경기도 문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각 지방문화원은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며 타 문화기관과 차별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에 대해 토론하면서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및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Section 3는 문화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사업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문화기획자 양철모님의 기초발제와 함께 의정부문화원의 조수기 원장님의 문화원 사업계획 및 회계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문화원을 알려나가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실무자의 역할 및 한계, 당면한 제도적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 소중한 우리 민속예술의 대향연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도 보고, 듣기 어려운 노동요, 회다지소리, 답교놀이 등의 민속 공연을 함께 즐기고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신명나는 축제인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지난 9월 30일~10월 1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와 양주문화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경기도 향토문화의 뿌리를 가다듬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 1982년부터 격년제로 이어져오는 경기도 대표적인 민속축제이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등의 대표 민속예술 공연 축제로 경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번 대회에선 경기도 29개 시·군이 참여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예술을 멋지게 선보였다.

또한 경연대회와 더불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다문화인들이 기획, 진행하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패 우금치의 “선녀와 나뭇꾼”도 함께 구성하여 한국의 민속예술과 더불어 아시아의 각국의 민속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경기도민과 각 지역대표들이 신명나게 즐기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취타대 행렬에 이은 각 참가자 퍼레이드를 선두로 2009년 대상을 수여한 동두내옛소리보존회(동두천대표)의 ‘동두내 두레소리’와 한뢰국악예술단과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 공연으로 화려한 축제



의 시작을 알렸으며, 축제장 곳곳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레인보우 김삿갓',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마당, 경기도의 특산품 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축제였다.

경기도 각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대표 민속예술 공연이 경연 형식을 빌려 양일간 숨 가쁘게 진행된 이번 축제의 최우수상은 광주시의 “광지원농악”이 수상하였으며 향후 2012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시상에 앞서 본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장인 이병욱 교수는 “각 지역마다 최선을 다해 애쓴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감동적인 공연이었으며, 대상감이 너무 많아 심사하기 힘들었지만 전통성과 연희자의 기량을 중점으로 원형에 충실하면서도 높은 기량을 선보이는 팀을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오용원 지회장은

“어느 팀 하나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띤 경연의 장이었으며, 우리의 뿌리인 향토문화 속에 담긴 조상의 얼과 슬기를 교훈삼아 더욱 더 찬란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경연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본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양주문화원 및 양주시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예술을 지키고 이를 계승하고자 생업을 마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1,500여명의 참가자들 덕분에 더욱 소중하고 빛났던 이번 경기도 민속예술제.

앞으로는 이 축제가 지역의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의 살아있는 삶의 배움터가 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함께 지혜를 나눠야 할 것이다.

##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짱! 짱이에요! 국악소리』세 번째 이야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시·군 순회 공연 『짱! 짱이에요! 국악소리』공연은 올해 2011년에는 가평문화원, 고양문화원, 연천문화원, 의정부문화원, 평택문화원의 주관으로 진행했다. 『짱! 짱이에요! 국악소리』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의 음악을 들려주고 알려줬다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음악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국악오케스트라와 티벳, 베트남, 중국, 몽골의 전통 악기가 그 나라들의 전통 음악을 협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낯선 악기와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이지만 익숙한 국악기가 함께 연주되니 한국인들에게는 신선함을, 자기 고향의 음악을 듣는 다문화인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티벳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온 벤빠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다.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잘 견디고 있다는 그는 관객들에게 「NEVER GIVE UP」(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티벳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애절한 마음과 함께 희망은 노래를 따라 관객들의 마음으로 전달되었다.



티벳 악기\_다넨, 연주자 및 노래\_벤빠

베트남 민요의 농음(음을 떠는 것)은 우리 민요의 농음만큼이나 매력적이다. 베트남의 1현금(줄이 한 개인 현악기)인 단보우는 베트남의 농음을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색을 갖고 있다. 단보우 협주곡 「異弄共感」(이농공감)은 한국의 민요 '도라지타령'과 베트남의 민요 'Qua Cau Gio Bay'(다리위에 부는 바람)을 모티브로 작곡되었으며, 베트남 악기와 국악관현악이 어울려 연주된다. 서로 다른 색깔의 농음이 한 음악 안에서 아우러지고 다른 어법의 음악이 만나 공감하는 멋진 어울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문화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베트남 악기\_단보우, 연주자\_프엉



중국 악기\_쟁, 연주자\_패려영

쟁은 우리의 거문고라 할 수 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13줄의 현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 16, 18, 21, 25로 현의 숫자가 늘어났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21현이다. 연주할 때는 손가락 끝에 손톱대용물인 가조각을 끼고 현을 뜯거나 튕겨서 연주한다. 중국 쟁 협주곡「臨安遺恨」(림안유한)은 중국 남송의 장군 '악비(岳飛)'의 시로 알려진 '만강홍'(滿江紅)의 선율을 기준으로 하여 악비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대부분의 음계가 있는 타악기들은 음판이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데, 목금은 특이하게 세로로 배열되



중국 악기\_목금, 연주자\_윤은화

어 있다. 목금협주곡 「종달새」는 16분음표의 분할 박자가 대부분인 매우 빠른 템포의 곡으로 타악기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목금의 여러 주법을 활용한 리드미컬한 곡으로 목금 특유의 음색과도 잘 어우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곡의 빠르기만큼이나 연주자가 음판을 치는 손동작 또한 현란해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절로 신이 난다.

한복을 곱게 입은 국악인이 민요를 부르면 모두들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하고 흥에 겨워 어깨도 들썩인다. 대부분 강원도민요를 불렀지만, 공연 당일 분위기나 관객에 따라 대표적인 경기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강원도민요는 서양의 단조와 비슷한 계면조로 된 가락이 많아 애절함이 묻어 있는 서민풍의 노래이다. 대개 느리고 구슬프며 순박한 내용의 가사이다.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차차 낮은 음으로 내려간 다음 가장 낮은 음으로 끝나며 메아리 같은 여운을 준다. 동부민요라고도 하고 독특한 꾸밈음과 구성진 면이 있다.



한국 민요, 노래\_채수현

마지막 곡 마두금, 양금 2중주 협주곡 「바람의 노래」는 눈을 감고 들으면 광활한 몽골 대륙을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하다. 연주 중간엔 몽골인 멘데가 '허미'로 소리를 낸다. '허미'는 배에서 나오는 소리와 두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내는 몽골 특유의 전통 창법이다. '허미'는 묘한 매력이 있는 소리이다. 이 곡의 연주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미' 소리를 내보려고 '으~~~'라고 저음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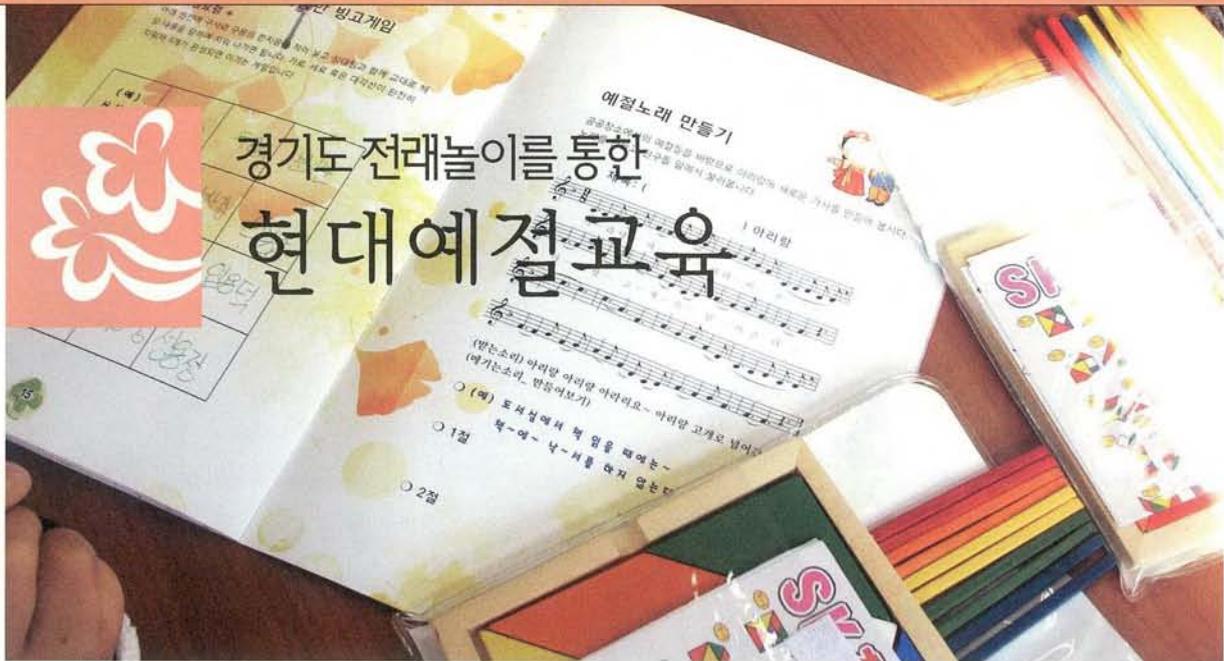


중국 악기\_양금, 연주자\_윤은화 (좌),  
몽골악기\_마두금, 연주자\_멘데 (우)

올해 공연에서 특이한 점은 문화원 주관의 지역 문화 축제 또는 특별한 행사 등과 연계 기획하여 국악공연 외에도 볼거리가 많았었다. 특히 의정부 공연은 다문화축제인 아시아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되어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객석에 많이 있었다. 지휘자가 티벳, 베트남, 중국, 몽골 연주자들을 소개할 때,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 국기와 모국어로 쓰인 만장기를 휘날리며 모국에서 온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었다.

◎ 공연일자

주관문화원	날 짜	시 간	공 연 장
연천문화원	10월 1일(토)	14시 00분	송의전야외무대
고양문화원	10월 8일(토)	16시 00분	행주산성 특설무대
의정부문화원	10월 9일(일)	18시 00분	의정부시청앞 상설야외무대
평택문화원	10월 14일(금)	18시 30분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가평문화원	10월 28일(금)	19시 00분	가평문화예술회관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이젠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에 도전하는 청소년에 대한 기사나 왕따로 인하여 고달파하는 청소년들의 기사가 새롭지 않을 만큼 청소년 폭력은 만연해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일같이 식당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 만큼 큰 소음을 일으키고, 과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을 지나가는 어른이 야단치거나 꿀밤 한 대를 때리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기를 죽인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심지어 꿀밤 한 대에 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기로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우리 아이들은 타인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가.

예절을 정의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이다. 그 규칙을 우리는 제일 먼저 가정에서, 공동체의 또래 집단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왔다.

그런데 학업 위주의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말하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줄었고, 학교에서는 바른 인성에 대한 가치보다 학업성취도를 우선시 하고 있다. 방과 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원에서는 당연히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만 진행될 뿐이다.

이젠 예절도 시간을 내어 배워야만 한다.

문화원은 기초 지역단위까지 설립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좋으며,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알기'라는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초등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미 몇 문화원에선 전통 다과교실, 전통 예절 교실을 강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 예절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문화원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 진행해보고자 했다.



## 왜 전래놀이인가

인성교육, 전통다과교실, 전통예절교육, 청학동 교육 등 다양한 이름과 방법으로 문화원을 포함하여 학교 안팎에서 예절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통 예절 강의를 1차시만 참여하여도 아이들은 교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태도가 달라질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짧게는 2~3일, 길면 1주일 정도는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다르다고 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 효과를 지속해야한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을 비롯하여 강사 수급, 학교 커리큘럼 등으로 정규 과정으로 편성되기는 힘든 현실이다.

몇 가지 큰 고민을 해야 했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익힐 수 있는 방법

둘째, 스스로 움직이는 체험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이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셋째,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배우고 익혀야 할 에티켓도 달라졌지만, 한국 전통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고민들을 수렴하여 전래놀이를 이용한 교육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전래놀이는 고대로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전통사회가 기르고자 했던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정놀이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부모, 형제, 친지와 하나가 되고,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사회의 규범을 익혀갔던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의 공동체 놀이를 통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군으로 성장해 왔다.

전래놀이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는 예절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 나아가 잊혀져가는 전래놀이와 전래 동요의 발굴, 계승, 보급은 향토사를 발굴, 보급하는 문화원에 안성맞춤인 장르이기도 하다. 게다가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즘 아이들이 신나게 환영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올해는 경기도 5개 문화원(광주문화원, 동두천문화원, 안성문화원, 안양문화원, 이천문화원)과 전래놀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함께 교육대상을 달리하며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다. 5개 문화원에서 총 16회를 진행하여 약 1,000명의 학생, 학부모와 만났다.



대상과 장소, 날씨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전래놀이의 종류와 진행순서는 달랐지만, 항상 처음은 국악실내악공연으로 시작했다. 낯선 선생님들과 노래를 부르며 얼굴을 익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국악으로 편곡하여 들려주며 같이 노래를 부르니 국악에 대한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었다.

실내 활동으로 주로 전래동요를 부르며 짝을 이루어 하는 손놀이, 문제를 내어 경쟁을 할 수 있는 칠교, 산가지 등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손놀이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스킨십을 하게 되어 서로에 대해 친밀도를 더 상승되는 것 같았다.

예절놀이는 예절의 가장 기본인 '인사하는 법'부터 교육이 진행되었다. 인사할 때 손의 위치, 허리를 굽히는 정도 등을 인사법에 따라 아이들이 연습도 해보았다. 이번 예절놀이의 특색은 아리랑 곡에 맞춰 아이들이 직접 예절 노래를 지어보는 과정이었다. 초등 4학년 이상부터는 도서관

에서 정숙해야하며 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온라인에서 악플을 달아서는 안되는 이유 등으로 어렵지 않게 가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저학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2차년도 사업에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기로 하였다.

활동 후에서 가족들과 전래놀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워크북과 전래놀이 준비물인 칠교, 산가지, 비석 등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주로 활동한 전래동요 가사, 전래놀이의 방법과 의미를 담은 전래놀이교안 '신나는 우리 전래놀이'를 PDF 파일로 제작하여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급하였다.

2012년 2차년도에는 이번 1차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안을 개발, 보급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 ● 프로그램

순서	제목	내용	기타
1	국악실내악공연 및 국악기체험	창작국악 공연관람 및 국악기연주체험 동요부르기	
2	경기민요배우기	경기뱃노래, 군밤타령 등	
3	전래놀이	전래동요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앉아서 하는 민속놀이(칠교, 산가지)	칠교, 산가지 개인별 지급
4	애기장승 만들기	애기장승을 직접 제작하고 몸통에 소원 글쓰기	애기장승 지급
5	예절놀이	생활예절 등 기초예절 교육 역할놀이 및 예절노래만들기	
6	민속놀이	국궁, 비석치기, 투호놀이	비석지급



지난 10월 18일에 열린, 경기도 시낭송의 밤에서 경기도의원 장태환, 최창의, 안혜영, 김경표, 금종례, 이재준(좌측부터)이 함께 무대에 올라 시를 낭송하고 있다.

## 경기도 시낭송의 밤\_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 -詩,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오용원)에서는 오는 10월 18일(화) 오후 5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에서 [경기도 시낭송의 밤\_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 개최했다.

본 공연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및 유명시인들이 함께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출신 시인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보고 詩를 매개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인문학적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기획된 시간으로 국악인이자 영화배우인 오정해님이 사회를 맡았다.

총 4개의 마당으로 구성, 각각의 마당이 특색

있는 퍼포먼스와 음악이 결합된 poetry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기획, 기존의 시낭송의 밤이라는 개념을 넘어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가 함께 협업(콜라보레이션)해서 시를 매개로 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 했다. 이근배, 정수자 시인과 금종례, 김경표, 안혜영, 이재준, 최창의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문화원장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형도, 박두진, 조병화, 홍사용 시인의 작품과 함께 애송시 및 자작시를 낭송하고, 이와 더불어 성남시립합창단의 시조뮤지컬과 시를 테마로 만든 탈춤퍼포먼스 및 시노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 공연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Part. 1.

## 間 (사이)\_ 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

아름다운 선율이 음과 음 사이에서 나오듯이 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울림 속에서 더 아름답게 삶을 노래할 수 있기에, 시를 통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주제로 구성된 1부 공연은 경기도 문화원장님들의 합창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조병화, 박두진 시인의 "사랑"과 "산맥을 가다"라는 시로 이뤄진 합송은 원장님들의 연륜이 묻어나는 멋진 목소리가 더해져 시의 깊이를 한층 더해 주었다.

뒤이어, 수원문화원 염상덕 원장님의 조지훈 작 "승무" 낭송과 함께 멀리 광주광역시에서 시낭송의 밤을 축하해주러 오신 김 종(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 지회장)님의 자작시 "노동의 지문" 낭송이 이어졌다.

이후, 바쁜 도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과 함께 시로 꿈꾸는 오늘의 시간을 빛내주기 위해 참여한 경기도의원 중 첫 순서로 장태환 의원님께서 박두진 작 "은하계, 태양계, 대우주천체 무한도"와, 안혜영 의원님께서 황지우 작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의 낭송이 하우스 밴드의 연주와 함께 진행되었다.



시낭송의 밤의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 씨



시흥문화원 정상중 원장님과 수원문화원 염상덕 원장님께서 조병화 작 "사랑"을 함께 낭송하는 모습.



광주문화원 남재호 원장님과 부천문화원 박형재 원장님,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님께서 박두진 작 "산맥을 가다"를 함께 낭송하는 모습

Part. 2.

## 餘白(여백) 시는 비움과 심을 주기도하며...

두 번째 마당은 시가 우리에게 주는 여백의 의미를 살리는 마당으로, 여백이 가지는 가능성과 재창조의 힘,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상력의 원천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순서로 성남문화원에서 성남의 위인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악극 “성남아리랑” 中 2악장 둔촌 이집의 이야기가 담긴 “탄천의 눈물”을 성남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선보였으며, 이후 김경표 의원의 “뱀새가 황새를 쫓다 가랑이 찢어진 날”이라는 자작 수필낭송이 이어졌다.

뒤를 이어, 성남문화원의 한춘섭 원장님께서 경기도의 큰 어른으로 단심가의 주인공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선보여주셨고, 시조시인 이시기도 한 광주문화원의 남재호 원장님께서 “토기가마의 혼불”이라는 자작시를 대금반주에 맞춰 낭송하셨다.



성남시립합창단의 “탄천의 눈물” 공연 모습



### 丹心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배 만 고쳐 죽어  
백골이 진드 되어  
김어리노 있고 없고  
남 황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리

1809 정몽주



경기도의 큰 어른-정몽주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님

Part. 3.

## 濃淡(농담) 시는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진하게 다가와...

세 번째 마당은 풍자와 해학으로 우리의 감정을 유쾌하게 씻어주는 탈춤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농담'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마당은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우리의 삶을 짙하게 또는 담백하게 표현해 내는 시의 묘미를 느껴보고자 마련된 시간으로 시조시인 정수자님의 "사도세자의 절규"와 이재준 의원의 "아!6월이여", 금종례 의원의 "그리운 기다림"이라는 자작시 낭송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특별한 공연이 이어졌는데, 경기도의 대표시인 중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기형도 시인의 작품 "엄마걱정"에 노래를 입힌 곡이 시낭송과함께 펼쳐졌다. 서정적인 멜로디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시 노래 곡은 깊어가는 가을날의 서정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민들과 함께 시를 나누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주신 이근배 시인께서 "자화상"을 낭송해주셨다.



자작시를 낭송하고 계신 광주문화원 남재호 원장님



"사도세자의 절규"를 낭송하고 있는 정수자 시인



기형도 "엄마걱정"을 낭송하고 있는 이종남 시인



탈춤 퍼포먼스\_ "구름나그네" 공연 모습

Part. 4.

## 越(너머) 시는 사람 그 너머를 보게 하는....

네 번째 마당은 사람 사이와 비움을 통한 상상력의 발견과, 삶의 애환을 너머 시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꿔보고자 마련한 자리로, 최창의 도의원의 도종환 作 \_“담쟁이” 낭송과 함께 오늘의 자리를 더욱 뜻 깊게 만들어주신 6명의 도의원이 윤동주의 “서시”를 합송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묻어나는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노래\_ “도라지꽃이 피었습니다”(시장에서 도라지를 까서 장사하는 할머니를 소재로 만들어진 시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소소한 일상을 사람냄새 나는 희망의 향기로 만들어 내는 詩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 오늘, 그로 인해 좀 더 살맛나는 사람살이를 기대하며 깊은 가을밤의 시와 함께 꿈꾸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윤동주\_“서시”를 함께 낭송하고 있는 장태환, 최창의, 안혜영 의원



윤동주\_“서시”를 함께 낭송하고 있는 김경표, 금종례, 이재준 의원



피날레 공연으로 시노래를 부르고 있는 신세계 프로젝트

## 제13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변화하는 시대, 지역문화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높여



지난 11월 17~18일 양일간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가족을 대상으로 양평 KOBACO 연수원으로 제 13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를 다녀왔다.

경기도 내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관련 식견을 넓히고,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 문화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연수는 일방적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강사와 연수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화성문화원의 어르신동아리인 “화성춤클럽”의 부채춤과 교방무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연수에서는 연수가 진행되는 양평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정병국 의원의 “문화, 소통과 공감의 코드”라는 주제

의 특별강연이 이뤄졌다.

지난 9개월간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초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다양한 문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유쾌하게 전해주었다.

뒤이어 축하공연의 일환으로 포천문화원의 “추억의 실버악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백발의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연주하시는 모습에 관객들의 환호와 함께 앵콜 요청이 쇄도했다.

공연으로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를 한국음악연구소 소장이자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신 노동은 교수님이 이어가셨다. “경기도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별도로 준비된 피아노를 활용해 클래식 및 뽕짝까지 다양한 장르를 직접 연주하시면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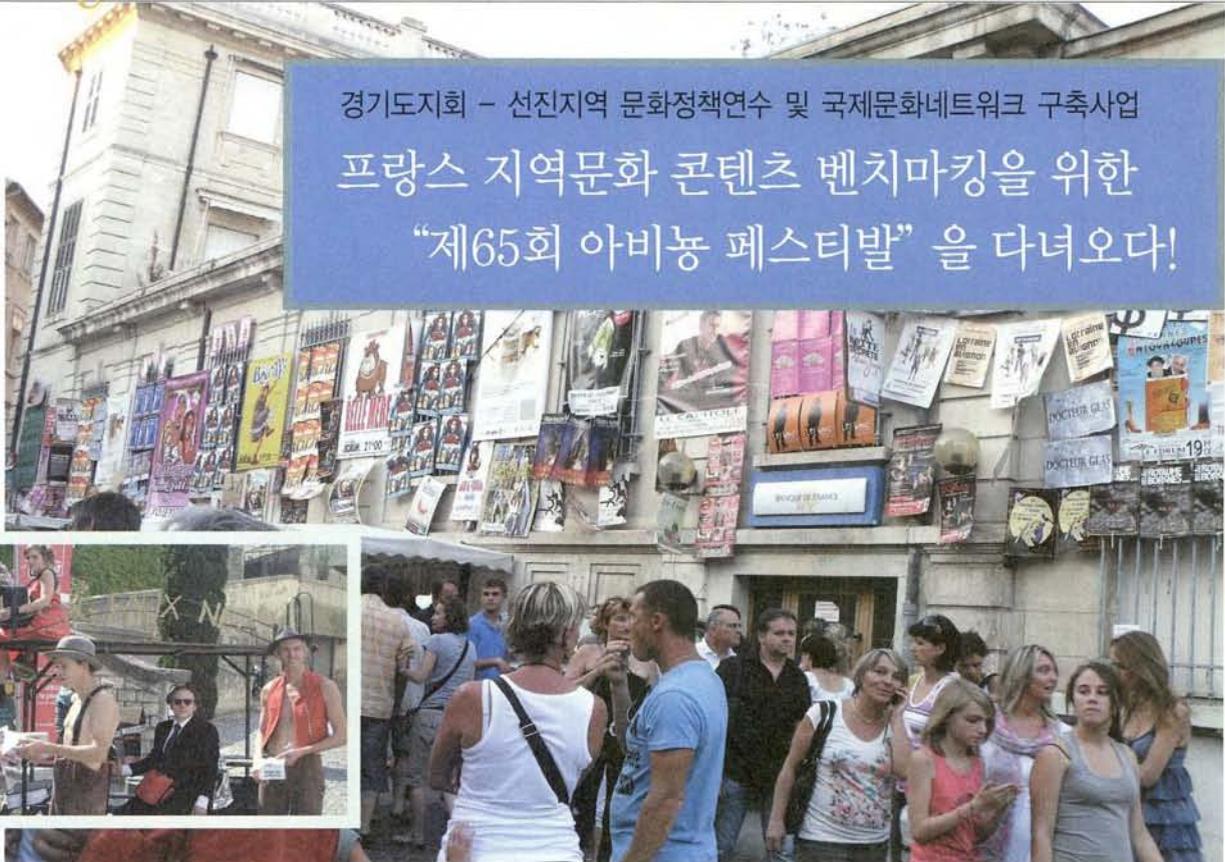
국 음악의 원형 및 특징,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굴해나가야 할 문화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주셨다.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흐름과 지방문화원”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인 류정아 박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현재, 변화하는 지역문화정책의 흐름과 지역의 문화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계된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시점에서 이를 보존, 발굴, 개발해나가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시류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이튿날에는 구리문화원과 부천문화원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전래놀이 동아리와 취타

대 육성 등 특성있는 사업을 운영 중인 구리문화원의 운영사례와 함께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 내에 있는 한옥거리를 위탁 운영하여 부천의 전통민속관광자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부천문화원의 사례 및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결과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1박 2일간의 알찬 시간들을 마무리 하였다.





경기도지회 -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프랑스 지역문화 콘텐츠 벤치마킹을 위한  
“제65회 아비뇽 페스티벌” 을 다녀오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지역주민의 다양성, 주체성, 창조성이 보장되는 ‘문화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역(local)이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자연, 인문 모든 면의 다양성이 풍부한 프랑스를 방문, 선진 지역문화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실시되었다.

지역문화 활성화차원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민의 교육”을 목표로 시작된 프랑스의 대표 지역축제인 제65회 아비뇽 페스티벌을 참관하고, 일드 프랑스 문화예술진흥원(ARCADI), 마르세이유 문화원(Espace Culture) 등의 프랑스 문화기관을 방문하여 문화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지역문화축제 운영 사례 등을 직접 체험,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당시 파리 및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던 예술공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1947년 9월에 연극배우이자 무대감독인 장 빌라르(Jean Vilar: 1912-1971)가 교황청 안마당에서 세 개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65회를 맞은 아비뇽 페스티벌은, 중세교황청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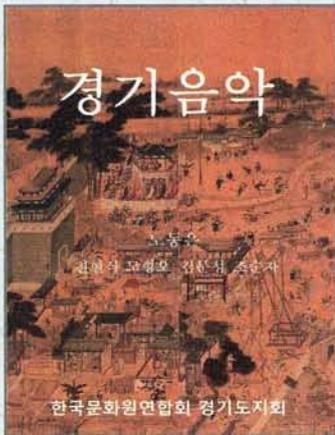
이 보존되어있는 도시의 장점을 살려 아비뇽을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켰다. 약 3주간의 축제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이 지역의 연매출의 40%에 이를 정도로 지역 축제라는 콘텐츠 하나로 지역경제를 튼실하게 하는 아비뇽을 보면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기도지회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위주의 경제 및 문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지방문화와 지방경제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 경기도도 아비뇽 축제처럼 하루빨리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살려 이웃 지역이나 도시와 비슷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축제를 기획할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

또한 남프랑스의 여름철 7, 8월에 남프랑스 대부분의 도시들이 아비뇽 축제로 촉발되어 중복되지 않는 아이템으로 다양한 축제의 클러스터를 이루어 세계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각 도시들도 상호 치밀하게 계획된 기획과 협업 하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일정 시즌 동안 다양한 축제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에 대해서도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임을 깨달았다.

# 발간 소식

《경기음악》 저자 : 노동은, 천현식, 모형오, 김문성, 조순자 | 출판사: 민속원 정가: 미정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음악》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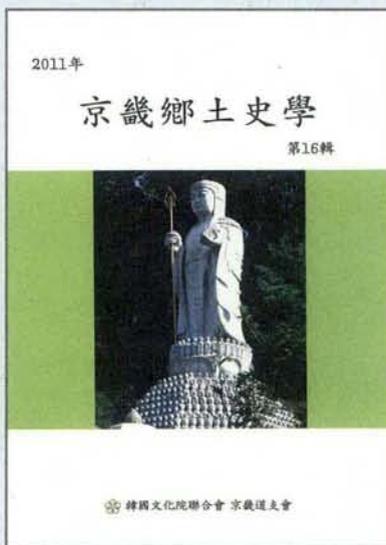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보급'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음악콘텐츠로 제작·보급이다. 이에 경기도 음악을 장르별로 개괄하고, 이와 관련된 악보, 문헌, 도상, 음향, 음반, 교재, 지도, 악기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 콘텐츠화, DB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이 DB는 경기도 음악원형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본 사업의 1차년도로 일제시대 이후의 경기도 예인집단음악과 동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경기음악》을 발간했다.

시기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2014년 이후
세부 주제	경기도음악 1 -예인집단음악과 동요	경기도음악 2 - 전통음악	경기도음악 3 - 근대음악	온라인 DB 서비스
내용	경기도음악 및 두 장르 분야 개괄 발간물 발행	전통음악 장르별 개괄 발간물 발행	근대음악 장르별 개괄 발간물 발행	온라인 DB 공개
			관련 자료 디지털콘텐츠화	지방문화원에서 활용 시 컨설팅
			관련 자료 디지털콘텐츠화	온라인 DB 구축 및 서비스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보급〉 추진 단계

## 《경기 향토사학 16집》 경기향토문화연구소



《경기향토사학》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이 1년간 각 지역에 대해 조사, 발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논문집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세세한 역사적 기초 자료이다. 올해는 제16집으로 총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 1 - (백제시대를 중심으로 한) 남한산성의 재조명\_한동역
- 2 - 수락산 석림사 지장신앙 연구\_최영희
- 3 - 소요사 연구\_홍정덕
- 4 - 조선시대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발생 고찰\_윤종중
- 5 - 명성황후(明成皇后)의 가계와 어린 시절\_조성문
- 6 - 初代 獨立協會長 安?壽의 活動에 대한 研究\_안국승
- 7 - 가평지구 한국전쟁 전적 자료 조사 연구\_신일균
- 8 - 파주 민통선 내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_권효숙
- 9 - 漢字(한자)는 우리 韓民族(한민족)의 文字(문자)이다\_김택기
- 10 - 우리 겨레의 쌀 활용보전(活用保全)과 벼농사의 유래\_이명수
- 11 - 地名由來에 대하여(高陽 배다리 中心)\_김득환

## 《경기도 토속소리淸 - 시흥, 성남, 과천, 화성》 책임연구원 : 이형환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요, 상여소리 등이 토속소리가 구전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토속 소리 보유자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토속소리들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토속소리를 발굴하여 경기도 문화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보하며, 토속소리의 지속적인 보존과 계승에 그 목적을 두고 《경기도 토속소리 발굴 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경기도 토속소리 淸 - 시흥, 성남, 과천, 화성' CD를 발매하였다. 이번 음반에는 경기도의 시흥, 성남, 과천, 화성의 소리를 담아내었다. 해설집에는 가사와 함께 각 소리가 지닌 문화적, 역사적, 음반적, 문학적 의미도 함께 실었다.

## 《이규보 평전》 저자 : 문철영



'경기도 문화역사인물 재발견' 사업의 목적은 업적의 인물 평가 가치가 간과된 역사 인물들을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조선시대 이전 시기의 인물로, 역사적 가치는 물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인물을 집중 재조명하고자 했다.

그 첫 번째 연구 인물은 '이규보'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주몽'의 원작 「동명왕편」을 지은 고려시대 문인이다. '이규보'(1168(의종 22)~1241(고종 21))는 고려 무신정권시기에 활동한 관료 출신의 문인으로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가 쓴 저작물을 모아 정리한 문집이 『동국이상국집』이다. 「동명왕편」 역시 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외 시·산문·서간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들에서 볼 수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포괄적인 내용과 의미 깊은 문학적·서사적 표현들은 이규보가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가히 독보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글들의 행간에는 당대 유학자로서, 문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규보 평전》은 이규보의 일생과 업적을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하여 재조명하였다.

# 경상문화지널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값 5,000원